

‘기독언론 사명’ 감당하도록 기도하며 돋겠다

기독일보 제1대 이사장

오병익 목사 취임감사예배 드려

본지 제1대 이사장에 오병익 목사(남가주벤텔교회 담임)가 취임했다. 지난 7월 31일 오후 3시 남가주벤텔교회에서 거행된 취임감사예배에서 오 목사는 “제1대 이사장으로 위촉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더욱 널리 전하는 일에 제가 해야 할 분명한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훤히 수

락하게 되었다”면서 “기독일보가 기독교 언론의 본질적 사명인 예수님을 전하는 일, 예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를 하나 되게 하는 일, 세상을 복음으로 책망하고 선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뒤에서 기도하며 돋겠다”고 밝혔다.

이날은 남가주 지역을 대표하는 교계 인사들이 참석해 식순을 맡고 오 목사의 취임을 축하했다. 본지 편집고문인 정우성 목사가 예배를 인도한 가운데 남가주중

부교회협의회 회장인 전동은 목사가 대표기도하고 남가주기독교 교회협의회 회장인 강신권 목사가 “심지가 견고한 자”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인 염규서 목사, 예수교미주 성결교회 증경총회장인 박용덕 목사, OC기독교교회협의회 수석 부회장인 이호우 목사가 각각 축사했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증경회장인 정해진 목사는 축도를 했다.

강신권 목사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자신과 동일시 하며 삶의 축복이 넘치는 기독일보와 이사장이 되길 바란다”고 설교했다.

염규서 목사는 “기독일보가 이사장 취임으로 인해 복음 전파에 더욱 귀히 쓰이길 바란다”고 축복했으며 박용덕 목사는 “평소 사랑하며 관심을 갖고 읽던 기독일보가 좋은 이사장을 모신 것은 큰 축복”이라면서 “오 목사는 지성

과 영성, 열정과 경험, 강함과 부드러움을 모두 갖춘 분”이라고 했다. 이호우 목사는 “공정하고 공평하며 덱스럽게 응서하고 화해를 이끄는 기독언론이 되라”고 부했다.

예배 중에는 남가주벤텔교회 쉐키나성가대와 김현지 자매가 특송을 했고 서병길 목사(새하늘 선교교회 담임)가 봉헌기도, 김은정 목사가 광고했다. 오 목사가 종재를 맡고 있는 1천만 한국인 이민운동의 상임대표인 박상원 장로도 축사했다. 예배 후 남가주 벤텔교회가 준비한 식사를 위해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회장인 강지원 목사가 기도했다.

한편 오 목사는 성결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이민 와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아주사페시피 대학교, 휴스頓신학대학원 등에서 신학을 공부했으며 남가주중부교회협의회 회장도 역임한 바 있다.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교수와 학생처장을 역임했고 이민목회를 40년간 해 왔다.

김준형 기자



취임사를 전하고 있는 오병익 목사.



이사장 취임 감사예배를 마친 후 참석자들이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맨 앞줄 중앙)오병익 목사와 사모.

“유럽·중동 ‘분쟁지역’, 성경 반포율 1년새 88% 증가”

세계성서공회연합회, 2015년 현황 발표…전 세계적으로는 1.5% 증가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 UBS)에서 ‘2015년 성경 반포 보고(The Scripture Distribution Report 2015)’를 발표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는 전년보다 약 1.5% 증가한 3,439만 6,611부의 성경전서가 반포됐다. 신약·단편·전도지 등을 포함하면, 총 4억 1,870만여 부가 반포됐다.

특기할 만한 점은 ‘분쟁 지역’에서 성경 반포율이 높았다는 것. 전쟁과 폭력, 갈등이 극심한 시리아와 이라크, 레바논과 요르단, 최근 쿠데타가 발생한 터키 등이 속

한 유럽·중동의 성경 반포율은 1년 사이 88% 증가했다. 성경전서는 241만 3,375부, 전체는 1,001만 7,251부 반포됐다.

이에 대해 시리아성서공회 총무는 “지난 5년 동안 시리아의 성

경 반포량은 최악이었기에, 기독교인들은 점점 성경을 갈급해하고 있다”며 “시리아의 각 가정이 어려운 상황에 있고 희망을 잃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으려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UBS 관계자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만, 성

경 반포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그만큼 성경을 원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적·종교적·사회적 어려움으로 성경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고 보고했다.

미주 지역에서는 성경전서 1,475만 4,056부와 전체 3억 3,035만 4,226부가 반포됐다. 이 지역은 최근 3년간 약 1,450만 부의 성경전서를 반포했다. 특히 올립픽이 열리는 브라질은 지난해 약 760만 부의 성경을 반포, 2010년부터 총 4,400만 부 이상을 보급했다.

[관련기사 9면에 계속]

“비신자 美청년들의 종교에 대한 관심”

휘튼대 2천명 대상 설문조사…신앙엔 관심, 내세엔 무관심

교회에 다니지 않는 청년들은 일반적으로 신앙에 관한 대화에는 마음이 열려 있지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궁금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프웨이 연구소(Lifeway Research)와 빌리그래함전도협회가 대학생들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불신자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소개하는 기존의 전도 전략은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프웨이 연구소는 최근 ‘교회에 다니지 않는’ 청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교회 활동의 형태와, 이들이 얼마나 신앙에 관한 대화에 마음이 열려 있는지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휘튼대학교 학생들 2,000명을 상대로 진행됐으며, 조사한 샘플은 2,000개, 표본 오차는 ± 2.7이다.

[관련기사 9면에 계속]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1)[13면 참조]



HAPPY MINISTRY CONFERENCE

당신의 교회는 행복합니까?



한기홍 목사
(은혜한인교회)



백동조 목사
(목포사랑의 교회)



힘든 이민교회 현장에서 행복목회가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교회가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교회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행복을 줄 기관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행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연스럽게 나누는

행복한 공동체로 세우는 행복목회가 대안입니다.

제자훈련, 성령운동, 셀을 통합하는

새로운 목회 폐려다임은 행복목회입니다.

일시 2016.8.15(월) 10AM
~ 8.16(화) 10PM

장소 은혜한인교회

대상 담임목사, 사모, 부교역자
정원 200명(선착순 등록)

등록비 1인 \$100 부부 \$150(교재 및 식사제공/숙박 개별)

참가문의 714-446-1000, 1004

은혜한인교회 사이트 <http://www.gracemi.com>

150 S. Brookhurst Dr., Fullerton, CA 92833

주최: 행복목회아카데미

주관: 은혜한인교회 후원: OC 교회협의회, OC 목사회, 남가주 목사회, JAMA



장애인과 함께 하는 제24회 밀알 사랑의 캠프가 7월 21일~23일까지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장애인'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장애인”

제24회 밀알 사랑의 캠프…10개 지역에서 550여 명의 밀알 가족 참여

장애인과 함께 하는 제24회 사랑의 캠프가 지난 7월 21일~23일까지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장애인”이라는 주제로 뉴저지 주 소재 하얏트 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캠프는 워싱턴, 뉴욕, 필라델피아, 리치몬드, 뉴저지, 시카고, 샬롯, 커네티컷, 캐나다 그리고 애

틀란타 등 총 10개 지역에서 550여 명의 밀알 가족이 함께했다.

성인캠프에서는 시카고한인교회 서창권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이동캠프는 김은예 전도사가 진행했다.

또 이재서 세계밀알총재가 한국으로부터 방문해 특별세미나를 인

도하기도 했다.

애틀랜타밀알선교단 하현지 간사는 “기도와 후원으로 Charter Bus를 통해 편안하고 안전하게 캠프를 다녀올 수 있었다. 캠프에 함께해 주신 모든 밀알 가족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윤수영 기자

“한인가정상담소, 서류미비자·저소득층 위한 무료 상담 올해도 계속”



만 달러를 기부하면서 시작된 ROCK(Resilience to Overcome Challenges for Korean families) 프로그램은 한인 중에도 서류미비자, 가정폭력 및 범죄 피해자, 저소득층, 무보험자 등 심리상담을 받기 어려운 이들을 섭겨왔다. 이 기금이 조성되기 전인 2014년에 한인가정상담소는 전체 피상담자의 8%에 해당하는 18명에게만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지만 이 기금이 마련된 2015년에는 전체의 33%에 해당하는 77명이 무료 상담 혜택을 받았다.

올해도 기금 5만 달러가 무사히 확보되면서 한인가정상담소는 무

료 상담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카니 정 조 소장은 “ROCK 상담 기금 덕분에 우울증, 불안증, 각종 트라우마를 겪던 한인들이 자신의 삶이 행복해졌다고 말한다”면서 “건강한 한인 가정을 만들라고 큰 기금을 마련해 준 후원자께 감사드리며, 한인가정상담소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해 상처받은 마음으로 힘들어 하는 한인과 그 가정이 회복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213-389-6755
카카오톡 아이디 KFAMLA
*주소: 3727 W. 6th St. #320
LA, CA 90020

김준형 기자

한인가정상담소가 올해도 한 독지가로부터 5만 달러를 기부 받아 심리상담의 사각지대에 놓인 한인들을 섭길 수 있게 됐다.

지난 2015년 익명의 한인이 5



신태훈 선교사가 군사랑선교회 월례모임에서 선교 보고를 하고 있다.

SAS 인가컨설팅
I-20신청, 선교회, 연구소
직업학교, 종교특례대학
일반대학 설립/인가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summitus37@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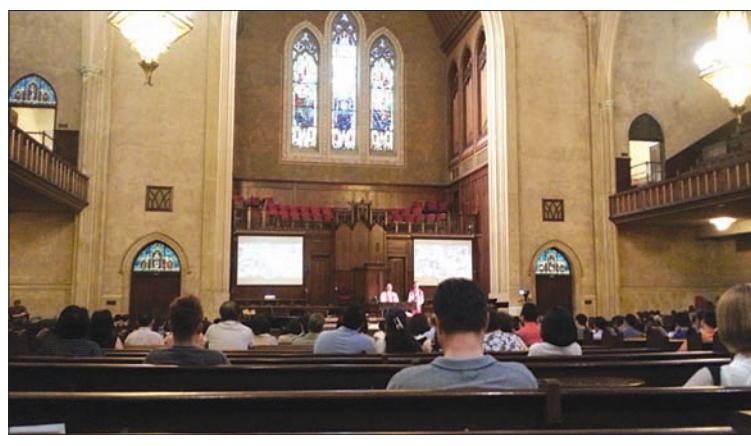
LA군사랑선교회 7월정기 모임 개최 군목 출신 신태훈 선교사 요르단 선교보고

한국 해군 군목 출신으로 요르단에서 선교 중인 신태훈 선교사가 LA 군사랑선교회(CLMM, 회장 김회창 목사) 7월 정기 모임에서 선교보고를 했다.

지난 7월 30일 월드미션대학교 강당에서 열린 이 모임에서 신 선교사는 10년째 중동 지역에서 선교하며 겪은 여러 가지 일들을 간증했다.

군사랑선교회는 매달 마지막 토요일 오전 11시에 동일한 장소에서 월례 모임을 열고 있다.

*문의: 213-268-9367



연합예배에서 갈보리믿음교회 담임 강진웅 목사가 성찬식을 집례하고 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

임마누엘장로교회·갈보리믿음교회 연합예배 드려

임마누엘장로교회(담임목사 Raafat Gergis)와 이 교회를 빌려 사용하는 갈보리믿음교회(담임 강진웅 목사)가 지난 7월 31일(주일) 주일연합예배를 드렸다.

이 두 교회는 매년 수 차례에 걸쳐 연합예배를 드리며, 다민족의 연합을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의 본보기로 보여 주고 있다.

예배는 영어권과 스페니시권 회중이 공존하는 임마누엘장로교회를 고려해 영어, 한국어, 스페니시 등 3개국어로 진행됐다.

이날 예배에서는 임마누엘장로교회 담임목사인 리파트 기르기스가 설교했다.

기르기스 목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흘어짐과 모임”(창 11:1~9, 행 2:1~3) 주제 설교를 통해 “베벨탑을 쌓던 인간들을 벌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여 흘어지게 하셨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시 모이고 연합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강진웅 목사는 성찬식 집례

와 기도를 인도했다. 특히 기도 순서에서는 한국식 통성기도 형태로 인도했다. 전쟁과 테러 때문에 분열과 흘어짐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 평화가 임하길 기도했다. 또 아직도 비어있는 많은 교회가 다시 부흥하여 복음전파에 앞장설 것을 기도했다. 마지막으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하길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했다.

한편 LA한인타운 한복판인 월서길에 위치한 이 교회는 오는 14일 진행되는 차없는 도로 ‘시클라비아’(CicLavia)행사에서 지나는 행인들에게 물병을 나눠주며 전도에 나선다.

이 행사는 8월 14일(주일)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LA다운타운 피케로로부터 LA한인타운 웨스턴까지 월서 불리바드 3.5마일 구간에서 진행된다.

*주소: 3300 Wilshire Blvd. #303
LA, CA 90010

*문의: 213-365-8880

이영인 기자

캘리포니아 어린이 합창단 창단 위한 오디션

8월 13일(토) 오후 1시 개최

킨더부터 12학년 대상



국제음악선교회(IMM, International Music Mission)가 어린이 청소년 합창단을 창단한다.

김삼도 목사가 25년 전 세운 이 선교회는 교회 음악 세미나, 천양 보급, 연주회 등 다양한 사역을 펼쳐가고 있다.

이번에는 캘리포니아 어린이 합창단(California Children's Chorale)을 새롭게 시작한다.

이 합창단 창단을 주도하고 있는 임보희 사모는 “연주회는 물론 천양 CD도 제작해 특별히 감옥과 선교지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을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임보희 사모를 비롯한 합창단 리더십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믿음의 세대들이 이 합창단에 함께 하

길 40일간 기도하는 중이다.

이 합창단에 참여하고 싶은 키더부터 12학년 학생을 위한 오디션은 8월 13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국제음악선교회 스튜디오(2341 W. Lincoln Ave. Anaheim CA 92801)에서 열린다.

찬송가나 CCM 1곡을 한국어 혹은 영어로 부르면 된다. 악보는 각자 지참해야 한다. 문의는 임보희 사모에게 하면 된다.

*전화: 562-926-1023

미성대학교 2016년 가을학기 신(편)입생 모집

(모집마감: 8월 24일 / 개강: 8월 29일)



모집과정

본교는 CA 주정부교육국과 연방정부교육부인준 ABHE에서 정식인가를 받아 학위를 수여함

신학부: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선교학석사(MAICS), 목회학박사(D.Min.)
경영학부: 경영학과(B.A.), 경영학석사(MBA)

상담학부: 상담학석사(M.A.C.), 상담학박사(D.C.)

입학지원

- 1. 입학서류: 본교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www.aeu.edu)
- 2. 전형방법: 1) 서류심사 2) 면접(장학생선발)
- 3. 신청마감: 2016년 8월 24일(수)

입학관련문의

Tel: (323)643-0301 / E-Mail: admission@aeu.edu(담당: Jin Lee)

미성대학교의 특징

- ABHE 정회원/서울신학대학교 MOU 체결(교수, 학생, 학점 등 전과정 협약)
- 전 과목 이중언어(한국어/영어) 강의
- 한국과 미국 또는 전 세계에서 수강가능(온라인강의)
- 국내외 유수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뛰어난 교수진

특전

- 모든 과정 I-20 발급, 졸업후 전과정 OPT 가능
- 저렴한 학비, 월 Payment로 낮은 부담
- 연방정부 장학금(Grant) 및 융자(Loan) 가능(영주권 또는 시민권학생)
- 성적과 자격에 따른 다양한 장학금(11종)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미 성 대 학 교

T. 323-643-0301, F. 323-643-0302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Email: info@aeu.edu



주안에교회가 창립 3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밸리체플에서 드렸다.

“걸음마다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

주안에교회, 창립3주년기념예배 …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최선 다할 것

주안에교회가 창립 3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 교회는 2013년 다우니에서 창립돼 현재는 밸리, 풀러턴, LA 한인타운 세 곳 캠퍼스에 각각 채플을 두고 있다. 7월 31일 주일 오전 11시 밸리 채플을 가득 채운 세 캠퍼스의 성도들은 지난 3년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축제의 예배를 드렸다.

최혁 담임목사는 “걸음마다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린다”고 전하고 “지난 3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부족한 절을 믿고 함께해 주신 성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했다. 최 목사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발자취를 따라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 기도와 훈련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예배에는 주안에교회 사역자들의 ‘부흥의 북소리’ 연주를 시작으로, 어린이들의 키즈워십, 한어권·영어권 청년 및 중고등부의 바

디워십, 하프 연주, 장로중장단의 특별 중창, 이 교회 솔리스트들의 사중창, 찬양사역자 이은수 목사의 특송, 연합세션팀의 연주, 연합성가대의 할렐루야 연주 등 음악회를 방불케 할 정도로 다양한 순서가 준비됐다.

또 최혁 목사는 교회가 3주년을 맞이한 이번 주부터 교회의 본질을 다루는 시리즈 설교 “The Church, 주 안에서 연결된 교회”를 시작했다.

김준형 기자



할렐루야한인교회가 이명희 교수를 초청해 부흥성회를 개최했다.

“교회여 일어나라”

할렐루야한인교회…이명희 교수 초청 2016부흥성회 개최

지난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LA 동부 지역에 위치한 할렐루야한인 교회(담임 송재호 목사)에서는 한국 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장인 이명희 교수를 초청해 2016년 하반기 부흥성회가 열렸다.

특별히 이번 부흥성회는 “교회여 일어나라”라는 주제 아래 사도 행전 2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초가 든든한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보이는 교회”, “기쁨이 가득한 교회”,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의 집회가 진행됐다.

이명희 교수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져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무장할 때 새로운 부흥의 불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PCUSA한인교회들의 고민”

전·현직 총회장…교단 신학적 성향과 문제점 고민 피력

미국장로교(PCUSA) 소속 한인 교회들의 연합체인 미국장로교 한인교회전국총회(NCKPC) 전·현직 총회장이 서신을 통해 PCUSA의 신학적 성향 및 논란들에 대한 깊은 고민을 나타내면서 한인교회들의 영향력 확대를 통한 교단 바로잡기가 장기적인 비전임을 피력했다.

전 총회장인 배현찬 목사와 현 총회장인 심평종 목사는 최근 회원들에게 첫 서신을 전달했다. PCUSA는 지난해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으로, 올해 222차 총회에서는 이슬람 지도자가 단상에서 알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로 인해 큰 홍역을 치렀다.

올해 총회에서 이슬람 지도자가 별인 일은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은 행동인데다 현장에서 미국교회를 비롯한 한인교회들의 항의와 이에 대한 지도부의 사과로 마무리된 해프닝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동성결혼 이슈에 이은 올해 이슬람 지도자의 실수로 인한 논란은 PCUSA 내에 소속된 한인교회들의 고민을 깊게 만들고 있기에 충분하다.

올해는 동성애와 관련한 특별한 이슈가 없었지만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 이후 더 이상 동성애와 관련된 잘못된 결정들을 바로 잡고자 하는 움직임들은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한인교회들은 여전히 깊은 고민 속에 있다.

이 같은 상황 가운데 NCKPC 전·현직 총회장들의 첫 서신에는 한

인교회들이 함께 협력하는 기도제 목들이 잘 드러나고 있어 주목된다. 서신은 “222회 총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교단의 신학적 성향과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우리들도 더 이상 어떻게 변명할 수는 없는 것 같다”고 함께 문제의식을 나타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한인교회들의 성장과 발전을 제시했다. 서신은 “다만, 교단 안에서 날로 향상되어 가는 NCKPC의 입장과 영향력을 통하여 교단의 한 축을 담당해 가야하는 우리들의 사명과 미래가 더 선명해져 가는 것 같다”고 밝혔다.

서신은 “작금의 비기독교적 문화 변화에 따른 미국 사회의 흐름에는, 교단의 문제만이 아니라, 시대적인 도전 앞에 선 교회의 위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교단 안팎에서 불어오는 적 그리스도적인 역풍은, 미국의 시민 종교(Civil Religion)였던 교회가 누렸던 역사적 공헌과 특권은 이미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신은 이와 관련, “교회사를 통

해서 볼 때 이때에 오히려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며 개혁의 정신을 복돋아야 할 때”라면서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에서 개최하는 제46차 전국대회 및 종회가 국내외적인 교회 개혁과 세계적인 개신교 선교사역의 새로운 각성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8·15 광복 71주년 기념 연합예배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주최”

8월 14일(주일) 오후 4시 30분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강신권 목사)에서는 올해로 71주년을 맞이하는 8·15 광복 기념 연합예배를 개최한다.

이 연합예배는 한반도에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민 1.5세, 2세들에게는 광복의 의미를 알리며 조국의 통일을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마련되

는 연합예배이다. 일시와 장소는 다음과 같다.

*일시: 8월 14일(주일)

*시간: 오후 4시 30분

*장소: 세계아가페선교교회

*주소: 933 S. Lake St.,

LA, CA 90006

*문의: 213-263-1364

(안기정 목사)



새 빛 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213-389-8275

520 S. Virgil Ave., #305 Los Angeles, CA 90020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나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임임(설리한의대)

수술없는 한방 성형
차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이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2016 Fall / 2017 Spring 여수룬 기독학교 학생모집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여
나와 나를 찾는 하나님 품”

학교안내

여수룬 기독학교는 선교사 및 목회자 자녀를 대상으로 한 고등학교입니다. 믿음과 지식, 암과 삶이 동일한 올바른 자녀들을 양육하여 그들이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군사들을 길러내는 것이 여수룬 기독학교의 목적입니다. 여수룬 기독학교는 경험 중심의 통합적 교육방식을 통해 성경적 세계관을 학생들이 계발할 수 있는 교육 방침과 교과 과정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배운 말씀과 지식을 실제 삶에서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지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안에서 경험한 말씀과 지식 가운데, 성경적 세계관을 세워가며, 하나님께 속한 크리스챤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함으로써 더욱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6:33 MOTTO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군사 양성”

·마태복음 6:33

3P WORLDS
성경적 관점 (Biblical Perspective)
-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 (Kingdom Purpose)
-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 (God-centered People)

3S WORLDS
순전한 복음 (Sound Doctrine)
순전한 삶 (Sound Life)
순전한 지식 (Sound Teaching)

세상의 영광이나 가치를 추구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군사들을 길러내는 것이 여수룬 기독학교의 목적입니다.

오직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삶의 목적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수룬 기독학교의 교육의 근본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고 경험함으로써 그 나라의 주인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가르칩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며 마음과 몸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을 세워갑니다.

순전한 복음은 건전한 성경관과 신학에 바탕을 둔 신앙 교육을 의미합니다. 순전한 삶은 암과 삶이 하나가 되는 인성 및 생활 교육을 의미합니다. 순전한 지식은 성경적 세계관에 바탕을 둔 통합적이고 실재적인 지식 교육을 의미합니다.

JESHURUN CHRISTIAN SCHOOL

www.jeshurunchristianschool.org

info@jeshurunchristianschool.org

315-474-8346

1800 E Genesee St. Syracuse, NY 13210

교장 이종주 박사

현 시리큐스 한인교회(PCUSA) 담임목사
유타대학교 기계공학 박사
KWMC (한인세계선교협의회) 부의장
선교사자녀 학교 설립협력기구 기구장
Advisor member of Northeastern Seminary's Advisory Council



시카고 휘튼칼리지 빌리그레함 센터에서 열렸던 2016다민족 선교캠프 모습.

“무슬림권 향한 세계교회 도움 절실히 요구돼”

인터콥선교회, ‘다민족 선교캠프’ 개최… 시카코 휘튼칼리지에서

미전도종족 전방개척선교를 수행하는 평신도 전문인 선교단체 인터콥선교회(한국 이사장 강승삼 목사, 미주 이사장 송병기 목사)가 개최한 <2016 다민족 선교캠프>가 지난 7월 26일~29일 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1,500여 명의 성도가 참석한 가운데 시카고 휘튼칼리지빌리그레함 센터(Billy Graham Center, Wheaton College)에서 열렸다.

현재 10/40창 이슬람권에 약 1,15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인터콥선교회의 이번 집회에는 미주 한인과 한인 2세를 비롯한 미국인, 필리핀, 중국, 일본, 페루, 인도 등 다민족 기독교인들이 대거 참가하여 세계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시간을 가졌다.

찬양, 예배 및 메시지와 강의

등 모든 진행은 영어와 한국어 이중언어로 진행되며 이 중 다민족 등 EM(영어권) 참가자 비율이 50%를 넘어서서 다민족교회가 세계선교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헌신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번 선교캠프 강사로는 이원상 목사(와싱턴중앙장로교회 원로), 최일식 목사(KIMNET 상임대표), David Ireland(뉴저지 Chrst Church 담임), Dr. Thomas Keinath(Calvary Temple International Assembly 담임), 최바울 선교사(인터콥 본부장) 등이 나섰다.

특히 박바울 선교사(이집트 선교사)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선교 최전방 현장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라며 “하나님께서는 흔들리고 있는

중동·아랍권에 영적 변혁을 일으키고 계신다”고 말했다. 박 선교사는 또 “시리아 난민 사태를 통해 주변국 터키와 레바논 등에서 무슬림들을 향한 복음 전파가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다”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역을 위임하신 것처럼(마 28:18-20), 우리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도하시는 선교 역사에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2016 다민족 선교캠프에는 이 외에도 주제강의와 선교사 간증, 선택 강의, 선교지 현장 소식과 영적 상황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선교지 문화와 삶을 체험하는 미전도종족 부스와 모임, 선교 페스티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펼쳐졌다.

[인터콥선교회 제공]

하프타임60 영성세미나

축복된 100세 시대
하나님의 비전과 함께



하프타임 60 영성세미나.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시니어 위원회(위원장 이명근 장로)가 지난 6월 12일부터 7주간에 걸쳐 진행한 ‘하프타임 60 영성세미나’가 마무리됐다.

인생 후반전의 영성을 디자인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지혜롭게 나이 들기’, ‘축복된 100세 시대 준비하기’, ‘하나님의 전’, ‘신의 성품’, ‘사랑하는 가족’, ‘섬겨야 할 공동체’, ‘피니시 웨’ 등의 주제로

진행돼 참가자들이 미래를 향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교회 시니어 사역 위원회를 담당하는 김재홍 목사는 “100세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이제 지혜롭고 건강하게 나이 드는 법에 대한 연구와

붙였다.

지난 7월 31일(주일) 참석자들은 그동안 교육받은 내용을 기초로 자신의 비전을 선언하고 사명 선언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세미나를 통해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따라 인생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이 되도록 새로운 인생의 후반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윤수영 기자

준비가 필요하다. 인생의 60대는 젊음의 모습이 남아있는 마지막 모습이다. 이분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함으로 인생의 후반전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이번 세미나는 교회 차원에서는 참석자들에게 선교적인 전도자로서의 방향을 제시하려 했다. 향후 완성도를 더욱 높여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내용을 확대해 애틀랜타의 전체 시니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교회 시니어 사역 위원회를 담당하는 김재홍 목사는 “100세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이제 지혜롭고 건

강하게 나이 드는 법에 대한 연구와

오네시모의 독백

김영언 저



28. 베드로가 질투한 요한

사도요한이 마가와 마태 그리고 누가의 예수복음서가 회람되는 동안에도 침묵하다가 긴 공백 뒤에 내놓은 복음서에는 다른 세 복음서에는 빠진 예수의 가르침과 에피소드들이 많이 담겨있다. 제자들이 모두 순교하고 예수와 함께 갈릴리를 걸었던 대부분의 이들이 사망한 지금까지도 요한은 살아 교회의 큰어른으로 남아 있다.

그가 복음서의 마지막에 소개한 에피소드는 원래 유명하다. 부활한 예수가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 허탕치던 베드로를 포함한 일곱 제자에게 나타나 그들이 끊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고 떡과 생선을 먹인 뒤 베드로에게 세번 반복하여 내양을 먹이라며 예수가 잡히던 밤 세번의 부인을 만회할 기회를 준 그 일 말이다.

베드로 본인도 생전에 많이 언급하였던 일이다. 그런데 내 눈길을 끄는 건 요한의 기록에 이 날 잡힌 물고기 숫자가 정확히 적혀있다는 것이다. 153마리. 부활한 예수임을 깨닫고 기쁨과 경황중에 조반을 같이한 제자중 누가 잡힌 물고기 숫자를 세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허나 요한의 이 사소한듯 납kin 기록은, 내가 예수를 본적도 없이 그들의 증언에 의지하여 이 도를 믿게 되었지만, 예수의 삶과 부활이 정말 사실이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

그런데 오늘은 그 유명한 에피소드 바로 뒤에 적힌 기록 그려니까 요한복음서의 마지막 다섯 구절(저자주 - 요한복음 21장 20절이하)이 처음으로 눈에 들어온다. 내양을 먹이라는 세번째 부탁뒤 베드로에게 허날 고난이 찾아오게될 것임을 예수가 예언으로 남기자, 베드로는 뜬금없이 뒤에 서있던 요한을 칭하며 요한은 그러면 어떻게 될것인지 를 예수에게 물었던 모양이다.

29. 갈증

40대 어느 봄날. 목이 마르다. 아담자손의 숙명인가. 오늘도 진득한 땀방울, 고단한 한숨/앞으로 오래 산다는데 하나도 즐겁지 않다./신 앞에 엎드려 목을 죽이나 이내 찾아드는 갈증./전체산 팔아산 밭에 묻혀있다는 보물은/작각일지 모른다는 외람된 의심./신과 이웃을 사랑하기 서툰 나는/그래서 더욱 마음이 불편하다./신앙을 가진줄 알았는데 미안하고 부끄럽다./내속을 알리 없는 봄볕은/나뭇가지 사이로 초록이 되어 내게 살랑 손짓한다./너무 생각이 많은 것인가. <계속>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웅
지사장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Grace Mission University

축
ATS 정회원
승인

학위과정	• 선교학 박사 (D.Miss)
	• 목회학 석사 (M.Div)
	• 기독교 교육학 석사 (MA CE)
	• 선교학 석사 (MA ICS)
	• 신학사 (BA)
특혜	• 한인신학교 최대규모의 도서관
	• 저렴한 교육비
	• English Track
	• LA Extension Class
	• I-20 발급
	• 연방정부 학비보조 (Federal Student Aid)
	• 온라인 통신으로 전과정 제공
	• HD 시스템 온라인 강의
	• 한인신학교 최초 “Live” 강의

LA 지역 입학설명회	
장소 및 시간	8월 24일 수요일 오후 2시 1520 James M Blvd. Los Angeles CA 90015 (Come Mission 국제본부 1층 강의실)
	주요 순서
혜택	한위인가소개 한위과정소개 정부학자금 보조 소개 학생 비자 소개 온라인 입학원서 접수소개 샘플강의 소개 입학관련 질문과 답변
	설명회 참가자에게 기념품 및 입학금면제 추천 및 Grace 장학금 지급(해당자에 한함) 간단한 다과와 음료 준비

2016년 가을학기 시작 : 2016년 8월 29일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웹사이트: www.gm.edu

찾아오는 길

겸손과 순종의 신양인격

베드로전서 5:1-6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호

본문에서 베드로는 장로중의 하나라고 설명하면서도 모든 다른 장로들에게도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 장로들이 절대로 교만하거나 어떤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려 하지 말고 겸손히 섬김의 자세로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 떼 중에서도 젊은 신양인들로 자신이 하늘나라 가기를 진정 소원한다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양인격을 통하여 제목과 같이 겸손과 순종의 신양인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그의 신양인격 수양이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 기대에 쓰실만하다고 인정되실 때에 그를 높이 들어 쓰시게 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닐지라도 교만하고 언행이 여러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상당히 기피하고 평 대상으로 “저 사람은 교회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또 그 인생은 벼려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때에 후회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1. 교회 지도자(指導者)의 마음가짐:

고난의 증인(證人)

본문 속의 장로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 즉 목회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1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종된 사명자는 영광의 증인이 아니라 고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에 당하신 그 모진 행패와 수난과 고난들은 제자된 신분으로 지내 오면서 잘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임당하시고 부활을 통하여 승천하신 후에도 성령을 보내서 성령 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실 때, 예수님이 고난을 먼저 증거하는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온갖 수모를 당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신 고난의 과정을 생생하게 증거하면서 그 예수님이 바로 당신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 할 때에 성령이 함께 역사하심으로 듣는 사람들도 믿어 질 수밖에 없도록 체험도 주시고 감동, 감화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2. 교회 지도자(指導者)의 마음가짐:

정지기의 자세

2절 말씀은 우리에게 맡겨진 양 떼는 내 양 떼가 아니고 하나님의 양 떼라는 말입니다. 그들을 치되 부득이함으로 마지못해 억지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토아 자원함으로 하며 자발적인 의지와 사명을 앞세워서 하라는 것입니다. 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는 것은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름을 팔거나 또 무슨 직분이나 사역을 빙자하는 일은 절대로 하나님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3절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은 양떼들의 신앙을 지도할 때 입술로만 교리적인 것, 사명적인 것, 또 의지적인 것을 훈련, 교육시키려 하지 말고 목자 자신의 생활로 본이 되는, 보여주는 설교에 힘써서 양 떼로 그 목자의 신앙생활을 보고 본받아 참 믿는 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목자장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교회 지도자(指導者)의 마음가짐:

온유(溫柔)와 겸손(謙遜)

5~6절 “젊은 자들아 이와같이 장로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과 순종을 힘써 훈련하여 때가 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 들어 크고 요긴하게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독일에 공작, 백작, 자작이 있고 후작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으뜸으로는 공작이었습니다. 왕의 근친 중에 로드리스케라는 공작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왕의 직계후손이 없어 조카들 중에서 왕위를 계승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로드리스케는 분명 자신이 왕위에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겸손과 순종으로 백성을 섬기기 위한 교육도 훈련도 받지 아니하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왕의 자리에 마치 자신이 오른 것처럼 교만하고 거만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고 상당히 위압적으로 건방지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술로 시간을 보내고 자신의 맘에 들지 않는 일이 있으면 포악하고 못된 짓을 하곤 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왕의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 생각하고 눈여겨 보고 있었지만 전혀 왕의 재목이 아님을 알고 왕위후보 계열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만약 그가 왕의 자질을 배우고 계율을 배우며 열심과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백성을 섬기겠다는 태도를 보였더라면 틀림없이 왕위를 계승했을 것인데 자신의 잘못된 처신으로 말미암아 왕위후보계열에서 배제된 것을 생각지 못하고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울분을 터뜨리며 점점 폐인이 되어갔습니다. 그 당시 독일은 기독교 국가였기에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에 가야했습니다. 그는 교회에 술에 취해 가기도 하고 흐트러진 모습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그가 사냥을 갔다가 눈이 많이 내려 길을 잃고 산속을 헤매다 그만 낭떠러지로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한없이 미끄러져 내려가다 위압감을 느낄 정도의 골짜기에 이르러 비로소 그곳에서 인간 자신의 나약함을 보

기 시작했습니다. 일국의 제왕이 될 꿈에 부풀었던 그가 평생 처음으로 대자연의 위대함과 웅장함에 스스로 위압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정말 보잘 것 없는 존재이며 허약하기 이를데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안감과 두려움에 스스로 막막함에 빠져듭니다. 그때 그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저를 보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나 아닌 나로 잘못 행세하고 광파와 교만을 일삼았습니다.”하고 기도하며 조금씩 겸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마침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함께 있던 사냥개가 주인을 종소리가 있는 곳으로 인도를 하게 됩니다. 개를 따라 가보니 아주 조그만한 기도원이 보였습니다. 그곳은 수도원이었습니다. 나이드신 목사님이 은퇴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평생을 하늘 나라가기까지 자기믿음을 알찬 결실로 채워가시기 위해 애써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개와 함께 어떤 사람이 다가오자 흑아나 와서 어디서 오셨냐고 물어보니 왕자라고 도 말을 하지 않고 그저 길을 잊어버려 이곳 종소리를 듣고 찾아왔다고만 말합니다. 목사님이 이곳이 너무 누추해서 있을만하나고 해도 자기 같은 죄인이 장소를 터칠 이유가 없다고 답할 정도로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데 통곡이 터져나와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오늘의 혼란은 제 터으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하며 밤새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이 먹을 것을 만들어 좀 드시고 기도하라고 했더니 “저는 그것을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 받아내 마음에 평안이 임할 때까지 저는 계속 낮아져야 합니다. 제 자신을 낮추고 더 낮추어 더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까지 내려가

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하며 사흘을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 후 목사님으로부터 일주일 동안 가르침을 받으면서 더욱 성숙한 신양인격을 갖추어 갔습니다. 그동안 왕궁에서는 사라진 사람으로 인해 많은 걱정 속에 있었는데 그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고리도에서 5:17과 같이 이전의 로드리스케는 지나갔고 보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양인격으로 겸손하며 순종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습니다. 그런 후에 그 사람은 아주 조용하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자기가 가진 소유를 정리하여 빙민촌에 나눠주며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겸손과 순종의 자세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공교롭게도 왕위에 올랐던 자가 병이 나서 죽기 전에 후임자를 세우는데 원로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 로드리스케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원하지 않았지만 원로원에서 모셔다가 왕위에 오르게 했습니다.

이 같은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 하시는데, 그런즉 겸손과 순종의 지혜를 배워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성령에 이끌리어 쓰임 받고 하나님 더 잘 섬기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불들려서 하나님이 요긴하게 또 높이 불들어 쓰실 재목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신양인격을 온전히 갖추도록 힘써야 합니다.

전도를 할 때도 자신이 낮아지고 낮아져서 오직 예수님만 보여지고 느껴지며 전달되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독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 때가되면 너희를 높이 쓰시리라”(벧전5:6)는 말씀처럼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호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한국 신문 설교	
T 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독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교 설교			
T 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워싱턴DC.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오후 4시30분/동부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AM1310 화요일 오후 5시 / 허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동부 오후 9시	기독일보	7시30분 2시30분
미국 신문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FM91.5(SCA)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https://www.youtube.com)에서 “장재호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킬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2016년 가을학기 신(편)입생 모집

“ABHE 인가위원회(Commission on Accreditation), 2016년 6월 27일자로 본교가 신정한 크리스천 상담심리 석사 (M.A. in Christian Counseling Psychology) 과정 개설 승인”

모집 과정

신학사 (B.A.), 교역학석사 (M.Div.)
크리스천상담심리 석사
(M.A. in Christian Counseling Psychology)
※ 원격강의로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개강 : 2016년 8월 29일 (월)
온라인 개강 : 2016년 9월 5일 (월)

ESL 개강 2016년 9월 5일 (월)

입학관련 문의

- 미국 1-562-926-1023 ext. 300 / office@pts.edu
- 한국 지역 대외협력 코디네이터 (박정환 목사) : 010-6612-1165 / park27-42@daum.net
- 유럽 지역 대외협력 코디네이터 (주철현 목사) : 010-9086-2458 / diakonia@gmail.com

ESL 문의 및 상담

www.facebook.com/SLCS.EPT

- 강우중 교수 (wjkang@pts.edu)

본교(PTSA)의 특징은,

5대주(북미주, 중남미, 유럽, 오세아니아, 일본)의 글로벌 네트워크

성경적 세계관과 복음주의적인 신학

기독교 인문학적 성찰과 훈련

첨단 테크놀로지와 우수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교수 - 학생 밀착형 온라인교육

다양한 장학제도

졸업 후 진학과 사역지와의 분명한 연결

* 전 세계 21개 지역노회로 구성된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 직업신학교인 본교를 졸업하면 본교단 목사고시는 물론 예장통합(PCK) 목사고시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본교단 소속 노회에서 인수 받은 뒤에는 협력교단인 예장통합과 미국장로교(PCUSA) 소속 노회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 926-1023 Fax. (562) 926-1025

www.ptsa.edu / office@pts.edu

토브 성경 연구

Tov Bible Study



강신권 목사

- 히브리식 사고 : 3통 사고
- 히브리식 체현 : 5특체현으로 성경 원전 해석
- 현재 : 요한계시록 특강(매주 수요일 7:30pm)
- 강사 : 강신권 목사
- 장소 : WBPC 세계성경장로교회

Tel(562)761-5242
Tel(213)739-0403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 김인수 교수의 한국교회사

교회의 애국과 사회개혁 활동(II)

한국 선교 초기 교회가 행한 애국 활동 중 고종 황제 탄신 축하연을 주관한 내용이 있다. 선교사들의 애국충군 업적 중 왕실과의 관계에서 빼어 놓을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종의 탄신일 축하 기념예배다. 언더우드는 1896년 국왕 탄신일인 9월 2일(음력 7월 25일)에 이를 기념하는 예배를 드릴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이 일을 통해 기독교가 애국충군의 종교임을 일반에게 알리고 동시에 전도 기회도 얻으려 했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다 4대문 안에는 그런 건물이 없어, 서대문 밖 독립문 근처에 약 1,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모화관(慕華館) 사용을 허락받았다. 단상을 세우고 깃발들을 달고, 배재학당 학생들을 동원해 국왕 탄신 축하 기도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선전했다.

언더우드는 밤을 새워 전도지를 만들고 기독교를 소개하는 소책자와 찬송가를 마련해 서울 전역에 뿐만 아니라 전국에 배포했다. 당시 몰려든 사람들이 전도지와 책자들을 앞다투어 가져갔고, 먼저 가지려는 사람들에 의해 아우성이 터졌다. 특히 찬송가 중에 왕을 찬양하는 노래가 들어 있었다. 이 노래는 ‘피난처 있으니 환란을 당한 자 이리 오게’ 찬송가곡에 맞춰 불렸는데, 그 가사의 일단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당신의 전능하신 힘으로/우리 국왕 폐하는/왕위에 오르셨습니다./당신의 성령께서/우리나라를 지켜 주시며/당신이 불들어/국왕으로 만수무강케 하옵소서

조물주요 하늘의 왕이신/유일하신 주님 당신께/우리는 찬양을 드립니다/모두가 당신께 경배드릴 때/당신의 웃음 밑에서/우리나라는 행복해질 것이며/부강하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내각 각료들을 위시해 각계각층 인사가 초청됐고 연설을 할 사람들도 내정 됐다. 주한 각 선교부의 선교사들도 모두 참석했다. ‘독립신문’은 이 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셔울 야소 교회 교원들이 대군주 탄신 경축회를 향해 모여 모임을 했고, 예배는 정중하게 기도로 시작됐다. 연설이 있었고 찬송가도 불렸다. 예배는 주기도문으로 끝났는데 언더우드 부인은 “그런 웅장한 소리로 주기도문이 외워지는 것을 들었을 때 전율을 느꼈다.”고 기록하고 있다.

언더우드는 이때의 광경을 한 잡지에 다음과 같이 기고하였다.

“창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과 기독교

인들이 회집하였고, 몇 사람의 각료들과 고위층 인사들이 단위에 좌정하였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연설을 하였다. 찬송은 우렁찼고 수백 명의

군중들이 주기도문을 경건하게 외웠다. 처음부터 이 일을 지켜보았던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이것은 기독교 공동체가 되는 것은 분명히 교회의 본분에 어울리는 일이다.

그러나 교회가 조직적으로 정치운동을 하거나 정치에 압력 단체가 되는 것은 분명히 교회의 본분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따뜻한 마음을 가꾸는 지혜

따뜻한 교회는 따뜻한 마음을 통해 세워진다. 따뜻한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다. 온유하다는 것은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누구나 따뜻한 사람을 좋아한다. 부드러운 사람을 좋아한다. 차갑고 딱딱한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정도 온도를 느낀다. 어떤 사람은 따뜻하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차갑게 느껴진다. 따뜻한 사람이 되려면 따뜻한 마음을 가꿀 줄 알아야 한다.

따뜻한 마음을 가꾸기 위해서는 따뜻함이 왜 중요한가를 알아야 한다.

따뜻한 기운에 모든 생명은 힘을 얻는다. 반면에 차가운 기운은 생명을 소멸시킨다. 겨울은 차갑다. 차가운 겨울에는 꽃이 피지 않는다. 봄은 따뜻하다. 그래서 만물이 소생한다.

차가움이 깊어지면 딱딱해진다.

반면에 생명이 약동하는 것은 따뜻하다. 따뜻함이 지속되면 부드러워진다. 딱딱하면 오래 가지 않는다.

반면에 부드러운 것은 오래간다.

몸에 온도가 있는 것처럼, 마음에

도 온도가 있다. 몸의 온도는 우리가

먹는 음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

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 몸의 온

도를 조절한다. 우리가 먹는 음식의

상당한 양이 우리 몸의 온도를 유지

하는데 사용된다. 또한 우리가 먹는

영의 양식과 정신의 양식이 우리 마

음의 온도에 영향을 끼친다. 우리 마

</div



문의전화 (213)739-2222 인터넷예약 www.PRTTOUR.com

뉴저지 본사 (201)313-0899 / 플러싱 지사 (718)928-3333 /

725 Grand Ave #305 Ridgefield, NJ 07657

로스엔젤레스 지사 (213)739-2222 /

154-08 Northern Blvd #2B Flushing, NY 11354

토론토 지사 (647)686-6000 /

5467 Yonge Street, Suite 2B Toronto, ON, M2N 5S1

서울 지사 (02)739-0890 /

Doosan We've 58 #1238 Jongno-gu, Seoul

데이빗 강의 여행 이야기
AM 1650
매주 화 1:30pm

제7차 출발화점

대륙횡단 14일

로스엔젤레스 관광을 시작으로 라스베가스, 3대 캐년 그랜드/브리스/자이언캐년 관광, 세계 최초 국립공원 엘로스톤, 솔트레이크, 화성에 온 듯한 배드랜드, 미첼시티, 위스콘신 주 메디슨, 건축의 도시 시카고, 클리브랜드, 세계 3대 폭포 중 하나인 나이아가라, 세계의 중심지 워싱턴DC, 뉴욕

▶ 특별출발: 8/14

\$2,100

(NY-LA 항공포함)

\$230 상당의 옵션이 포함된 놀라운 혜택

1. 은광촌(캘리포 고스트타운)
2. 라스베가스 아경
3. 수우족의 성지 크레이지 호스
4. 바람의 동굴(\$30/1인)
5. 하우스 온 더 럭(\$40/1인)
6. 나이아가라 HMAX & 스카이론 타워 (\$50/1인)
7. 나이아가라 HORNBLOWER 탑승 체험
8. 자유의 여신상 유람선
9. 엠파이어 스테이트 진망대

제이 김 동행
LA에서부터 모시겠습니다

나이아가라/토론토 4일

선착순 30명!

▶ 특별출발: 9/2(금)

\$949

9월 2일 밤 출발~9월 5일 LA 도착

노동절 연휴를 알차게 즐기세요!

(왕복항공 포함)

1. 나이아가라 폭포 도보거리의 호텔숙박
2. 스카이온 타워에서 즐기는 특식, 3. 토론토, 나이아가라 관광
4. 토론토 왕복항공 이동 장거리 버스 탑승, 새벽기상 없이 아워를 끊거나 나이아가라를 완전히 즐기는 철호의 찬스!
5. 캔 제작 아미넴 마을, 6. 테이블 럭/월풀/원예 학교/꽃 시계/수족관전시 관광
7. 세계 최상품, 나이아가라 특산품 REIF 아이스와인 시음 8. 나이아가라 온 더 레이크 관광

푸른투어
오픈기념 이벤트

★ 응모기간: 2016년 7월 8일 ~ 10월 14일
주첨일: 1차 8월 15일, 2차 9월 15일, 3차 10월 15일
(한국공항역행공권 8월 16일 1장 추첨, 9월 15일 1장 추첨하여 그 외 모드상품 10일 15일 추첨합니다.)
★ 응모처: 푸른투어 사무실, 한국일보 판매부스
(올림픽 캘리아 백화점 / 코리아타운 프리자 내 / 시티센타)
※ 시무실 내방 고객님께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그랜드서클 9대캐년+세토나 7일

\$849 ▶ 8/25

예술과 대자연의 만남 "세도나", 거대한협곡 "그랜드캐년", 콜로라도 강을 따라 형성된 "글렌캐년 & 파웰호수" 빛의 미술 "앤틸롭캐년", 나바호 부족의 성지 "모뉴먼트밸리", 바람이 빛낸 산비의 "아치스캐년", 모든 캐년을 모아놓은듯한 "캐년랜즈", 협곡속으로 들어가다 "캐파트리포", 불은 첨탑들의 향연 "브라이스캐년", 응장한의 극치 "자이언캐년", 세계 최대 앤솔리티언먼트 도시 "라스베가스"

단풍 한국일주 10일

\$2,560

(항공포함)

Imagine your Korea

e-world

▶ 특별출발: 10/20

전주/해남/순창/한려수도/남해/외도/경주/영덕/설악

노동절 특선 345!



'하늘에서 즐기는 세계 7대 자연 비경, 레인보우 브릿지'

마운트 워트니의 워트니포탈, 모로베이를 함께



요세미티/타이오가 패스 3일 \$345

워트니 포탈 / 비숍 / 타이오가 패스 / 요세미티/타이오가 패스

프레즈노 / 모로 베이 (카약)

빅서/피니클스 국립공원 3일 \$345



산타 바비라 / 빅서 / 카밀 씨티 / 레드우드(기차) /

파소 로블레스 (와이너리) / 피니클스 국립공원

샌디에고 기차여행 3일 \$345

샌디에고(기차) / 샌디에고 올드타운 / 라호야(소풍) /

샌디에고 나항(크루즈) / 줄리안 /

엘림 핫스프링스 (온천) / 캘리포니아 랜치 (와이너리)

서부본부

신상품

3대 캐년 3일 \$249



▶ 8/8, 8/22, 9/2 3일 \$249 신제품방기념

- 하루 하루도 반나절을 세도나에서, 제대로 세도나를 느끼고 즐기기~!

- 라스 베가스 1박/세도나 1박, 이제까지 없던 '역서리 세도나 여행'

4대 캐년 8/28 출발 4일 \$399

▶ 8/29, 9/26 4일 \$399

- 세도나 투어 / 퍼스 / 피니클스 국립공원

4대 캐년 + 요세미티/샌 프란시스코 7일 \$689

▶ 9/26 7일 \$689

4대 캐년 + 3대 캐년 + 앤솔리티언 캐년 7일 \$689

▶ 9/26 7일 \$689

5대 캐년 5일 \$599

▶ 9/26 5일 \$599

5대 캐년 + 요세미티/샌 프란시스코 8일 \$899

▶ 9/26 8일 \$899

▶ 매주 월 4대 캐년 + 모뉴먼트밸리 3일 \$345

▶ 매주 월 4대 캐년 + 모뉴먼트밸리 3일 \$345

▶ 매주 수 3일 \$345

▶ 매주 수 3일 \$345

미서부 실속 여행 ▶ 매주 수 6일 \$599

▶ 매주 수 6일 \$599

요세미티/샌 프란시스코 4일 \$389

▶ 매주 화/금 4일 \$389

▶ 매주 화/금 4일 \$389



ATA 총회 및 국제 컨퍼런스 참석자들이 행사 둘째 날, 총신대 양지캠퍼스 100주년 기념예배당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진행되는 모습.

“성장하는 아시아 교회 속 신학의 역할과 과제 모색”

ATA 총회 및 국제 컨퍼런스 총신대서 개최…34개국 3백여 신학자 참여

아시아신학연맹(ATA, Asia Theological Association) 제14회 총회 및 국제 컨퍼런스가 25~29일 총신대학교(총장 김영우 목사) 양지캠퍼스에서 진행됐다.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2절 위에 선 아시아교회'를 주제로 열린 이번 ATA 총회 및 컨퍼런스에는 영국과 캐나다, 일본, 이스라엘 등 34개국 신학자 300여 명이 참석해, 아시아 기독교의 역사와 현황을 살피고, 미래를 위한 선교전략을 모색했다.

첫날은 김영우 총신대 총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조셉 샤오 ATA 사무총장의 강연으로 이어졌다. 이후 둘째 날부터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돼 총 5차례 세션에서 한국을 포함해 각 국가를 대표하는 신학자

들이 발표했고, 분과별 모임과 기도회, 패널토의 등이 마련됐다.

특히 총회 둘째 날인 28일 저녁 테레사 루아 박사가 3년 임기의 ATA 신임 사무총장에 취임했다. 필리핀 출신인 루아 박사는 취임을 직전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신학계를 이끄는 각 국가의 지도자들을 섬길 수 있어 영광"이라며 "성령께서 아시아의 교회들과 함께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나라별 신학교육 기관들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일에 더욱 전문성을 기하고, 신학 교수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그 내실을 다질 것"이라며 "또 목회 현장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신학적 연구와 아시아 교회들의 네트워크 구축에도 집중

할 것"이라고 했다.

루아 박사는 특히 "예전에는 아시아의 교회들이 서구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지금은 그 반대"라며 "이는 서구 교회들은 쇠퇴한 반면, 아시아 교회들은 지금도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ATA는 이러한 아시아 교회의 성장 배경을 분석하고, 신학의 역할과 과제를 모색해 세계교회가 동반 성장하는 데 공헌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968년 싱가포르 범 아시아 복음주의 회의를 계기로 1970년 창립된 ATA는 34개국 299개 신학 기관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3년마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신학자들이 모여 총회 및 컨퍼런스를 갖고, 아시아 신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지 고민하자”

‘그런즉, 우리도!’ 주제…1일부터 6일동안 세종대에서 ‘선교한국2016’



선교한국 2016 대회가 1일 세종대 학교에서 “그런즉, 우리도!”라는 주제로 시작됐다. 조이 선교회 주

관으로 6일까지 5박 6일 동안 열리는 이번 대회는 첫날 커크 프랭클린 박사(국제제위클리프 총재)의 저녁집회 강연으로 문을 열었다.

커크 프랭클린 박사는 “삶은 한 시적”이라 말하고, “주님 주신 삶을 책임있게 살자”면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가?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도전했다. 그는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

게 응답할지를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커크 프랭클린 박사는 “예수께서 편안하고 안락한 틀을 깨고 ‘밖’으로 부르신다”면서 “교회가 너무 편해서 예수와 함께 위험부담을 안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니”고도 했다. 그는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신다”면서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될 각오가 되어 있는가?”를 물었다.

강연 후 참석자들은 개인별 성경 강해 묵상의 시간을 가진 후 첫날 일정을 마무리 했다.

2일부터는 오전 주제강의와 영역별 주제강의/멘토와의 만남 등이 계속되며, 선교사역 박람회와 상담, 특히 3일 수요일에는 ‘선교한국 한마당’의 시간도 마련된다. 주강사로는 커크 프랭클린 박사 외에도 화종부 목사, 톰 린, 김용훈 목사, 이민음 선교사, 천민찬 선교사 등이 나선다.

한편 주최 측은 이번 선교한국 2016 대회에 대해 5가지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것은 ▶역사적 의미와 건강한 선교참여를 위한 동원의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하는 일 ▶복음의 본질적 기반이 탄탄한 실천적 그리스도인들로 발걸음을 떼게 될 영적으로 준비된 4,000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섬길 것을 목표로 준비 ▶연합체가 준비하는 대회로 개별 단체에 비해 상당한 수준의 컨텐츠 확보 ▶대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와 내용들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현재의 삶과 괴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 ▶선배 선교사, 사역자들과의 밀도 있는 만남을 통해 강력한 도전이 이루어진다는 점을(멘토 시스템, 선교한국 대회 참가자/현신자 모임, 선교현장 선교사들의 참여 활성화 등) 파악하여 실제화 하는 일을 추진하는 것 등이다. 흥은혜 기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은 2009년 구 군형법 제92조의5가 ‘계간이나 그 밖의 주행’을 2년 이하 징역으로 형사처벌 하도록 변경하고,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주행과 심신상실·향거불능을 이용한 준강제주행을 별도 조항(제92조의 3·4)으로 처벌하도록 개정되면서 위원소원에 휘말렸다.

쟁점인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선 “예시조항인 ‘계간’이 남성 사이의 항문성교를 의미하는 점, 동성 간 폐쇄적으로 단체생활을 하는 군 특성상 동성 사이의 비정상적 성적 교섭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심판대상조항의 주된 보호법익은 사회적 범의인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인 점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 조항의 ‘그 밖의 주행’은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합헌에 반대의견을 낸 네 명의 대법관이 있다는 점은 한국교회가 깨어 있어야 함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탈동성애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요나 목사는 “오늘의 합헌 판결에도 마땅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이유는, 겨우 5대 4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라며 “현실 정치가 갈수록 동성애 옹호 쪽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저들은 오늘의 판결을 ‘절반의 승리’로 자축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전했다.

그는 “기독교가 대세였던 유럽과 미국 모두 동성애 문제에 있어 실패한 이유는, 죄의 문제를 복음이 아닌 인권법과 정치적 문제로 대응했기 때문”이라며 “이제 우리는 이 같은 전철을 밟지 말고, 저들이 위원소송을 또 다시 준비하는 동안 저들의 ‘소돔성’인 종로와 이태원에 진리의 빛, 곧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고 했다. 이대웅 기자

2016 미주기독대학박람회

<p>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p> <p>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p> <p>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p>	<p>미성대학교</p> <p>•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회, 목회학학회, 통역학회 • 영방정신 승인 20~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국 및 한국에서 시사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목사 T213407-4569</p> <p>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p> <p>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 643-0301! Fax: (323) 643-0302 www.aeu.edu/info@aeu.edu ceumaster@gmail.com</p>	<p>미주대한신학대학</p> <p>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충족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쉽의 준비.</p> <p>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p>	<p>미주장로회신학대학</p> <p>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총 목사고시, 인수기능) I-20빌행 및 각종 장학제도</p> <p>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p>
<p>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p> <p>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지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p> <p>2975 Wilshire Blvd. #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p>	<p>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p> <p>TRACS 정회원 인증 특전: 2010 발행/선교사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회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p> <p>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 (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p>	<p>솔로몬대학교</p> <p>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p> <p>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렌트 프赖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p>	<p>월드미션대학교</p> <p>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p> <p>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p>
<p>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p> <p>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호 박사</p> <p>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p>	<p>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p> <p>With the world! To the world!</p> <p>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p>	<p>FULLER THEOLOGICAL SEMINARY</p> <p>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p> <p>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p>	<p>그레이스미션대학교</p> <p>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p> <p>신학(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영문장학금으로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 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p>



“비신자 美청년들의 종교에 대한 관심”

휘튼대 2천명 대상 설문조사…신앙엔 관심, 내세엔 무관심

[1면으로부터 계속]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이들'은 지난 6개월 동안 결혼과 같은 특별한 경우나 공휴일 외에 예배에 나가지 않은 이들을 의미한다. 놀랍게도 교회에 가지 않는다고 응답한 미국인들의 절반 이상이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분의 2(62%)가 이웃의 안전을 걱정하는 교회 모임에 나갈 것이라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51%는 공동체 예배 행사에, 45%는 콘서트에 갈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46%가 스포츠나 피트니스 프로그램에, 46%가 이웃 모임에 참석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66%가 예배에 초대 받는다 해도 '가지 않겠다'거나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답했다. 더 많은 응답자인 74%는 '하나님을 궁금해하는 이들을 위한 소그룹 모임에 가지 않겠다'거나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답했다.

왜 교회에 대한 이러한 혐오감이 존재하는가?

이달 초, 크리스천포스트는 프레스톤 울메르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회의론자와 무신론자들을 전도하기 위해 덴버 지역 커피숍에서 '의심하는 자들의 클럽'이라는 새로운 모임을 만든 인물이다. 크리스천포스트는 그에게 특별히 젊은이 가운데 교회에 대한 비호감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그는 "밀레니엄 세대들은 크게 2가지 개념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다.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과 독특한 관계성이 그것이다. 나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어떤 외적인 것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이러한 이슈들이 대부분의 미국 교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무엇보다 이들은 확실성의 감각을 갖고 대화한다. 신앙에 대한 도전과 믿는 자들과의 우정, 독특한 관계성 형성 이후 그들의 개인적인 신념은 진리에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이같은 설명은 공동체와 연결된 교회 활동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인다는 조사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응답자의 47%가 만약 종교에 대한 주제가 나온다면 이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한다고 말했다. 응답자의 31%는 별다른 반응 없이 듣기만 하다고 했으며 11%는 주제를 바꾼다고 답했다.

라이프웨이 스콧 맥코넬은 사무총장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미국인들은 신앙에 대해 적대적이지 않다. 다만, 교회가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뿐"이라고 했다. 그는 또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그들의 전도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사 결과, 많은 미국인들(43%)이 마지막에 '오늘 만약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라고 묻는 질문에 "전혀 또는 확실하게 마음에 다가오지 않았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맥코넬은 "만약 기독교인이 되는 단 하나의 유의이 천국에 가는 것이라면, 교회에 나가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출석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신앙에 대한 유일한 대화의 방법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2015년 세계 성서 반포 현황



2015년 세계 성서 반포 현황.

“분쟁지역 성경 반포율 1년새 88% 증가”

세계성서공회연합회 발표…전 세계적으로는 1.5% 증가

[1면으로부터 계속] 아프리카 지역도 2015년 성경전서 757만 7,127부와 전체 965만 5,999부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0년에 비하면 36% 가량 증가한 수치이며, 반포 품목들 중 3/4 이상이 성경전서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도 꾸준한 성경 반포가 진행 중이다. 성경전서 965만 2,053부, 전체 6,868만 9,752부가 반포 됐으며, 최고 반포량은 약 3,080만 부의 인도와 약 1,550만 부의 필리핀이다.

이대웅 기자

“텍사스 학내 총기소유 오픈 캐리법”

대학생들 총들고 등교…Open-carry법 8월 1일부터 발효

텍사스 주가 지난해 캠퍼스 내에서 자 유롭게 총기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오픈캐리'(Open-carry)법이 결국 8월 1일 그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총기 면허를 소지한 이 지역 21세 이상 대학생들이 신변 보호를 위해 총기를 소유하고 등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텍사스 주에서 21세 이상 합법적 총기 소유자는 1%에 이른다.

이로써 텍사스는 美 50개 주 중 캠퍼스 내 총기소지를 허용한 8번째 주가 됐다.

공화당이 장악한 텍사스 주 의회는 지난해 6월 캠퍼스 내 총기 소유를 허용하는 이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생들이 성범죄와 테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직원과 학생들의 셀프 방어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데 있다.

하지만 스스로 방어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한다는 법안 취지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즉 이 법안의 발효로 캠퍼스 내 총기 사건이 더 자주 발생할 수도 있어 캠퍼스 내 안전이 위태로워지고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리라는 점이다.

이에 텍사스 주립대 교수 3명은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영인 기자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점은이 예배 오후 2:22 모전 6:20(토)
주일 바질중학교 & 토요시내 - 17기 버논코너
주중세미 -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설 담임목사
www.Lasarang.com

연재선 담임목사

LA 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01민가정을 치유하여, 선교방법을 순종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213)386-2233

김기설 담임목사
www.Lasarang.com

연재선 담임목사

LA 온하늘교회

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픈 11:20 토요새벽기도회 오픈 6:00
학성, 청년부 예배 오후 11:20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 90019
T.(818)983-9024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장태원 담임목사

한천영 담임목사

LA 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 90006
T.(213)909-6473 / www.missionla.org

김기설 담임목사
www.Lasarang.com

연재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동동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동부 오후 12:45

강진웅 담임목사

한천영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백천 세계 비전!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김기설 담임목사
www.Lasarang.com

연재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박영천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새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김기설 담임목사
www.Lasarang.com

연재선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평생하여 든든히 서기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 939-7323 / www.kwpla.org

김기설 담임목사
www.Lasarang.com

연재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동동부 중고동부 오전 11:00
EM 예배 오후 1:00 토요공부부 토 오전 9:30~12:30
한여행나루부 오후 1:30 어마니드모임 수 오전 10:30

서건오 담임목사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온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김기설 담임목사
www.Lasarang.com

연재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6:00

김기설 담임목사
www.Lasarang.com

연재선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김기설 담임목사
www.Lasarang.com

연재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10:30 중고동부 예배 저녁 10:30
2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3부예배 주일 오후 1:30 목요전양예배(매일) 오후 7: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0:30

김기설 담임목사
www.Lasarang.com

연재선 담임목사

산타모니카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김기설 담임목사
www.Lasarang.com

연재선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30 성경공부 주일오후 12:00
토오픈북부 모임 오전 11:00

김기설 담임목사
www.Lasarang.com

연재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전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김기설 담임목사
www.Lasarang.com

연재선 담임목사

나눔장로교회 앤카라 선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407 W. 6th St. #412, Los Angeles, CA 90006
T. (310) 404-6219

김기설 담임목사
www.Lasarang.com

연재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LA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후 11:00
4부예배 오후 5: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토)오후 6:0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300 sunhanchurch.org

고태형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성공부 오전 9:30 주일학교-주일예배 오후 10:30
영화회중예배 주일 오후 1:00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626)872-2405 교회,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후 11:45
4부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은혜한한제자들이 사랑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622-2324, F.(909)622-1480 / inland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상전) 금요예배 오후 7:00
오후 11시 (본전)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상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록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증보기도집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3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사우스 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이창민 담임목사

L.A. 연합감리교회

100년 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살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 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돌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u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50
금요성경대회 오후 7:20
EM예배 오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7:00(토)
오후 1:00

박정환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불집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3부 예배 오후 1:3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EM 예배 오후 1:00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화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천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예배 1부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후 1:30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새벽 예배(화-금) 5:30
EM YOUTH 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화-금) 오후 7:45

박정환 담임목사

예수인교회

Christian Missional Church

10452 Louise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434) 229-6597 / cmc12.com / yesuin12@gmail.com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집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김인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West Hills Presbyterian Church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집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밸리체플 Valley Chapel
주일예배 오후 8:00 / 9:45
금요성경집회 - 새벽예배 오후 7:45
새벽예배(화-금) 5:30, 토 6:00
새벽예배(화-금) 5:30(월-금) 6:00(토)

LA예배처소

갓스월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00
아침예배(화-금) 오전 11:00

이화철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이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화-금)
오후 6:00(토)

고승희 담임목사

장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후 11:00
창대교회 사령의 나눔회(매주 토) 오전 10:00-11:00

이준준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화-금)
오후 6:00(토)

이승준 담임목사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l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증보예배(화-금)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화-금) 오후 9:11시

정상용 담임목사

대홍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종이 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9:30
3부예배 오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화-금)

강신권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후 11: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화-금)

서보천 담임목사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금) 5:30(화-금)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예배(화-금) 5:30(화-금)

곽덕근 담임목사

예수인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 예배 오전 8:30 새벽예배(화-금) 5:30(화-금)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예배(화-금) 5:30(화-금)

최혁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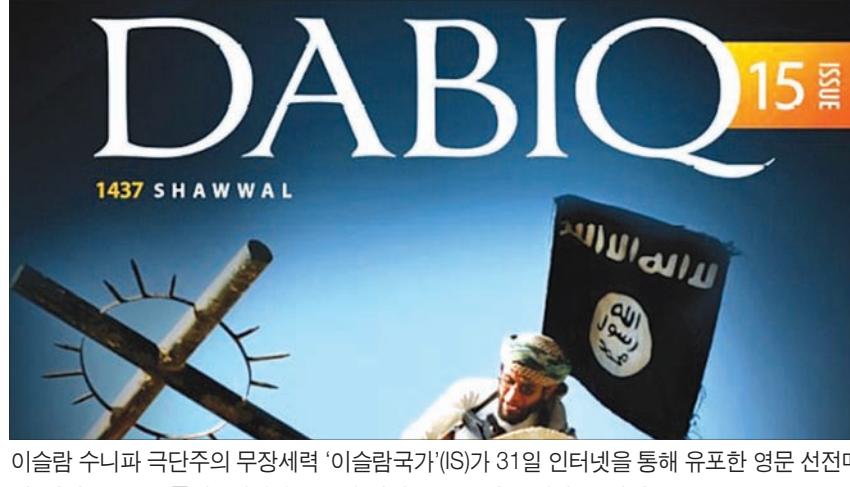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주일 예배 오전 8:30 새벽예배(화-금) 5:30(화-금)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예배(화-금) 5:30(화-금)

김인식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가 31일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영문 선전체 '다비크' 15호 표지. '십자가를 공격 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다비크

“IS, 선전잡지 통해 십자가 파기명령”

이슬람 대 서방종교 구도로… 테러 정당화 시도

‘이슬람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가 31일(현지시간) 인터넷으로 유포한 자신들의 영문 선전잡지 ‘다비크’(Dabiq) 15호를 통해 기독교에 대한 테러를 부추겼다.

이날 발간한 다비크의 표지에는 IS의 깃발을 배경으로 한 조직원이 교회로 보이는 건물의 지붕에서 십자가를 떼어버리는 사진과 함께 ‘십자를 파괴하라’(Break the cross)라는 제목이 실렸다.

IS는 이 잡지에서 “서방에 숨은 전사들은 지체없이 기독교인을 공격하라”면서 IS를 추종하는 ‘외로운 늑대’의 테러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IS는 참고할 사례로 미국 올랜도와 프랑스, 방글라데시에서 벌어진 테러를 예로 들었다.

IS의 이같은 주문은 최근 독일과 프랑스에서 IS 추종자의 테러가 번발한 점

을 부각하는 동시에 자신들이 벌인 유혈사태를 ‘이슬람 대 서방 종교’라는 종교전쟁 구도로 몰고 가려는 계략으로 일각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상전으로 IS는 서방을 이슬람을 편박하는 세력으로 몰고, 자신들을 이에 정당하게 맞선 ‘이슬람의 보호자’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구도가 형성될 경우 서방에서 IS가 벌이는 테러와 인명 살상을 이슬람의 소위 ‘지하드’(성전) 즉, 종교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아울러 다비크 15호에는 “서방의 기독교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이단자들은 서방인에 대한 무슬림의 종오와 적대감 뒤에 깔린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면서 “기독교를 버리고 이슬람을 받아들임으로써 회개하라”고 종용하는 내용도 실려있다.

“이집트, 기독교인들 박해 날로 심각해져”

이집트 인권단체…정부, 보호 약속하고도 재판 기회 제대로 안줘

이집트의 한 인권단체가 “경찰이 희생자들에 대한 어떤 보호 조치도 거의 제공하지 않는 가운데 이집트 콥트 정교회 공동체를 상대로 한 여러가지 공격이 자행되고, 폭력이 무섭게 증가하고 있다”며 공개적인 우려의 뜻을 밝혔다.

이집트인권자유위원회 미나 타베트 박사는 AFP 통신에 “콥트 크리스천들에 대한 공격은 매우 단기간 내에 급증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몇 주간 대규모 무슬림 폭도들이 크리스천들의 교회 건축과 예배 집회를 방해하며 그들 집에 방화를 저지른다는 보고가 계속됐다.

이집트 경찰과 정부 관리들이 이러한 범죄의 책임자들을 처벌하지 않은 반면, 자신의 신앙을 실천해 온 크리스천들은 구타를 당하고 위협을 받아왔다.

AP 통신은 “무슬림 공격자들이 사적인 갈등을 이유로 두 명의 사제들의 가족들을 칼과 곤봉으로 상해를 입히는가 하면, 한 크리스천 남성은 지난 주 미나 마을에서 칼에 무참히 찔려 사망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박해 감시단체인 국제기독연대(ICC)는 “크리스천 소녀와 여성들이 상부 이집트의 무슬림 남성들에 의해 납치와 강간을 당하는 일들을 수 없이

목격해 왔다”고 경고했다.

압델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는 크리스천들을 보호할 것을 약속해 왔으나, 그 동안 정부는 희생자들을 위한 재판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운동가들은 말했다.

타벳은 “미나를 비롯한 다른 여러 마을의 크리스천들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는 데는 이집트 내부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급진주의 이슬람과 높은 문맹률 그리고 가난한 마을이 상부 이집트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집트 시민인권 운동가이자 영국 요크대학의 박사학위 연구원인 쉐리프 아제르는 “가장 큰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고발 건수가 턱 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당국으로부터 가해자 측에 가벼운 경고를 주는 정도의 ‘화해’ 기간을 갖도록 압력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집트인권단체(EIPR)는 “이 화해 과정은 긴장 상태를 지속시키고, 시민들 간의 모든 분쟁을 종파 폭력과 집단 처벌로 쉽게 확장시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파키스탄 교과서, 비무슬림 증오·배척”

인권단체 정의와평화국가위원회 보고…역사적 사실까지 왜곡 심각

인권단체인 정의와평화국가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Justice and Peace, 이하 NCJP)는 파키스탄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가 기독교인을 포함해 비무슬림을 증오하고 배척하는 내용의 자료들로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NCJP 세실 셰인 츄드리 사무총장은 아시아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소수 종교인들에 대한 이슈일 뿐 아니라 국가적인 이슈”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수 종교인들은 정부에 적기(red flag·위험을 알리는 깃발)이다. 정부는 국가를 만들고 보호하는데 있어서, 교회의 역할을 반드시 의심하게 돼 있다”고 했다.

NCJP는 파키스탄 4개 지역에서 사용되는 주정부 승인 교과서를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했다.

40쪽의 보고서는 “아이들이 종교를 평신적이고 극단적으로 배우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NCJP는 또 학교의 교과서가 비무슬림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한 혐의도 있다고 했다.

미국제종교자유위원회 역시 파키스탄의 교과서가 4,100만 명의 아동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버트 P. 조지 위원장은 지난 4월 “파키스탄의 공립학교 교과서는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무슬림들은 2등 시민으로 그려져 있으며, 애국심이 없고 내성적이며, 문제로 가득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 또 역사적 사실의 왜곡도 많다”고 밝혔다.

강혜진 기자

O.C./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일예배도회 9:00pm
(2부) 1:30pm 금요온전절야예배 8:00pm
서부예배 (월) 5:00am (금) 7:00am
화요종교기도회 7:00pm 토요성경예배 7:00pm

앤티류 김 담임목사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주일예배 1부 주일 9:00AM 새벽예배 월-금 5:30AM
주일예배 2부 주일 11:00AM 주일 11:00AM
주일 11:00AM NEXT 한국학교 토 9:30AM-1:00PM
대체예배(월) 주일 2:00PM NEXT club 주일 12:40AM-1:40PM
제자훈련(시역훈련 회-목) 7:30PM

김일영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NEXT Sa-Rang Church
11 Musick Irvine, CA 92618 Tel (949)829-0010(office)
www.nextsa-rang.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찬양부 오전 9:30, 11:30
한국어찬양부 오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김영길 담임목사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도서제작부예배 오전 5:00 설기축 예배 :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부예배 오전 11:00

민경업 담임목사

남가주 벤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806-2562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박재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월-금)

이경우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4552 Lincoln Ave. #207, Cypress, CA 90630
T. (714) 952-0191 / www.socalgfc.com

주일예배(E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안창훈 담임목사
9:00am (매월 두번째 금)
고등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주일이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김일권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고현종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새벽 6:20
4부 오후 2:00(점은예배)

이서 담임목사

다감사교회
The Gamsa Community Church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988-3321, www.dagmachs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EM주일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김일권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 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9:00 P-kinder(Korean) 오전 11:00 Children(1-6)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Youth(7-12) 오전 11:00 토요한글학교, 페터스쿨 College 오후 1:00

이동준 담임목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250-1111 / www.beautiful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홍성준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체예배 오후 2:00

우대권 담임목사

얼바인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주일 예배 생방송을 기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예배 오전 8:15 유년부, 초등부 예배 오전 11:30
주일예배 오전 9:30 영어중·고등부 예배 오전 11:30
주일예배 오전 11:30 한어중·고등부 예배 오전 10:30
영어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6:30, 토·주일 오전 6:00

엄영민 담임목사

김민재 담임목사

예 친 교 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421 Rose Dr., Yorba Linda, CA 92886(Worship Center)
T. (714)788-3677 / www.yorbachurch.com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교회 사무실)

1부예배 오전 9:00 &10:30 새벽예배 화-토 5:30, 토 6:00
금요예배 오후 7:30

한기홍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1부예배 오전 9:00 세벽예배 평일 오전 6:30
2부예배 오전 9:30 토요일 오전 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온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 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

2016년 제30회
크리스찬 문학

신인 등단 시상식

미주 크리스찬 문인협회
크리스찬 문학 제30회 신인 등단 시상식



축하객 및 신인상 수상자, 회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맨 앞줄 오른쪽으로부터) 기도에 흥정길 목사(두 번째), 말씀에 김신영 목사(다섯 번째)



신인상 시 당선자 김선민



신인상 수필 당선자 나두섭



신인상 수필 장려상 김성지



신인상 수필 가작 안호용



신인상 수필 장려상 김홍숙



봉사상 김용섭 장로



신인상 수상자들



신인상 소설 당선자 김승년



축하송을 부르고 있는 김숙영 교수



축도하는 이태환 목사(남가주원로목사회 증경회장)



시, 수필 부분 심사평을 하고 있는 김문희 작가



소설 부분 심사평을 하고 있는 김상분 작가



인사말을 하고 있는 정지윤 회장



사회자 이지현 수필가



신인상 수상자들과 함께한 임원진



축사하고 있는 최선호 목사



격려사하고 있는 최학양 목사

■ 성지순례 이야기(1)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이스라엘로 가는 길

이 글을 통해 이스라엘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스라엘을 다녀온 사람들에게는 다시 이스라엘을 기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 또 앞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할 사람들에게는 영성으로 가는 깊은 안내서가 되었으면 한다. 서병길 교수와 함께 떠나는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를 통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영성순례의 길을 함께 떠나보자. -편집자 주



벳산에 있는 후세인 국경(요르단).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



요단강과 알렌비 국경(요르단).

■ 들어가는 말

누구나 고향이 있고 고향에는 고향만이 풍기는 향기와 아련한 추억이 있다. 성년이 되어서도 어린 시절의 고향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시절들을 생각해 볼 때가 많이 있다. 그리고 언제나 그 시절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다.

신앙의 고향인 이스라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이 땅에 대한 아련한 향수가 기독교인들에게는 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오고 싶고, 보고 싶어 오랫동안 기도하고 물질로 준비하여 오는 이들이 많이 있다. 고향이기 때문에 처음 오는 이도 언젠가 와본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다.

신앙의 고향에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살피고 느껴서 후세에 전하여야 하는 사명이 순례자들에게 있다 (시48:12~14),

고향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왜 찾아왔어야 하는지 깊은 영성으로 보아야 의미가 있다.

■ 이스라엘로 가는 길

이스라엘로 가는 길은 여러 경로가 있다.

먼저 비행기로 가는 길이 있다.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유대산악 지역을 넘어 세펠라 지역으로 가다 50km쯤 가다가 만나는 사론 평야에 위치한 벤구리온 국제공항이 있다. 1996~97년 사이에 대한항공이 취항하여 한국에서도 논스톱으로 오는 비행편이 있었다. 그러나 I.M.F와 이스라엘 정치 상황 등으로 이스라엘정세가 불안하여 순례객들이 줄어들어 자연히 직항편은 없어지고 말았다.

현재 2016년에는 대한항공과 EL AL ISRAEL AIRLINES이 취항하고 있고, 11시간이면 한국에서 이스라엘에 도착 할 수 있다. 유럽노선을 이용하거나 대한항공으로 키아로로 와서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편을 이용하기도 하고 터키를 비롯한 아시아 쪽으로, 우회하는 경우도 있다. 가장 저렴하고 빠른 시간에 들

어울 수 있는 비행기는 우즈베키스탄 항공기이다. 가격도 제일 저렴하고 노선간 거리가 가장 짧다. 이스라엘과 한국과의 시차는 7시간 차이가 나며 센터 타임 때는 6시간의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 저녁비행기를 타면 다음날 새벽에 이스라엘 공항에 도착하게 된다. 비행기의 경우 전 세계 어느 도시에서든지 다 이스라엘로 올 수 있도록 항공노선이 연결되어 있다. 미국 LA의 경우는 LA에서 엘 알 이스라엘 항공 직항편이 있고(보안검색이 까다롭고 요금이 비싸다)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 아메리칸 항공 비행편도 있다. LA에서 주5회 직항이 있고, 15시간 25분이 소요된다. 하지만 대부분은 뉴욕이나 중간 경유지를 이용하여 대서양을 건너 이스라엘로 간다. 이런 경우는 16시간 45분 이상 소요된다.

두 번째로는 배로 가는 길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좀처럼 볼 수 없는 방법인데 비행기로 유럽에 와서 배로 이태리나 그리스, 터키 등지에서 유람선을 타고 하이파 항구로 들어가는 길도 있다. 사실 배를 타고 다니면 멋진 낭만을 즐길 수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배편은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한국인조차도 배타고 이스라엘을 출입국하는 경우 거의 없는 실정이다.

세 번째로는 차를 이용해 육로로 가는 길이 있다. 가장 빈번하게 또 순례객들에게는 코스라고 할 정도로 거의 모든 순례객들이 육로를 통하여 들어간다. 육로에는 이스라엘과 이집트 국경이 있는 홍해의 타바와 지중해변의 라피아가 있다. 라피아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험 지역 중 하나인 가지지구의 남쪽 끝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살벌한 풍경을 가지고 있다. 때때로 국경이 폐쇄되기도 한다.

이 길은 수에즈운하를 건너 카이로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전에는 순례객들이 이용하기도 하였으나 지금은 거의 이곳을 통하지 않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고향인 이스라엘에 대한 향수있어

항공편, 배편, 육로편 등을 통해 이스라엘로 입국

이집트 타바 국경을 통한 입국이 가장 일반적

아 이러한 통로가 있는가 하고 의아해 하는 사람들도 있다.

대부분의 순례객들은 이집트를 둘러보고 시내산을 거쳐 홍해변의 타바 국경을 거쳐 이스라엘에 입국 한다.

또 하나의 육로가 있는데 바로 요르단을 통하여 들어오는 방법이다. 요르단과 이스라엘은 평화협정을 맺은 아랍국가로서 400km에 달하는 국경가운데 3군데의 국경을 통과하여 왕래할 수 있는 곳이 있다.

맨 남쪽에 있는 아카바 국경은 이스라엘에 오는 편보다는 이집트에서 요르단을 넘어갈 때 이용하는 통로이다. 이전에는 배를 타고 홍해를 건넜는데 언제부터인가 육로로 이스라엘을 통하여 아카바로 요르단을 나가는 코스가 활용되고 있다.

갈릴리지역의 베산 동편에 있는 후세인 국경도 들어오는 편보다는 나가는 편으로 활용되고 있다. 주로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거쳐 요르단을 여행할 때 이용되는 코스이다.

반면에 여리고 동편에 있는 알렌비 국경은 요르단 여행을 마친 순례객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코스로 주로 이용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알렌비는 이스라엘에서 요르단으로 출국 할 때는 이용할 수 없다. 비자를 찍어주는 사무실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로 이스라엘로 입국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비행기를 이용한 항공로나 육로를 이용한 이집트 타바 국경이 이용되므로 영성으로 가는 이야기 성지순례는 타바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다.

■ 이집트 타바 국경에서부터 시작되는 순례

따라서 필자는 이야기 성지순례

를 타바에서부터 시작하여 공항으로 나가는 편을 택하여 기술하도록 하겠다. 성지순례가 피크인 12월에는 팀이 많게는 7~8개 적게는 4~5개 팀이 한꺼번에 타바로 들어와 북새통을 이룬다. 가히 한국인의 날이라 할정도로 한국인 순례객들이 많이 온다.

보통 타바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맞이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있는 가이드가 버스와 함께 아침 9시쯤 출발하여 타바에 오후 2시경 도착한다. 이집트에서 오는 팀 중 빠르게 오는 팀은 거의 2시에 넘어와서 가이드들을 미안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대개는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국경을 넘어온다. 이집트에서 입국장에 들어오는 대개의 사람들들은 마치 훈련병들처럼 경직되어 있기도 한다. 왜냐하면 이집트 쪽에서 국경통과 요령을 배우면서 이스라엘 국경의 삼엄한 경계에 대하여 들어서이다. 필요이상으로 주눅이 들기도 한다. 보안요원이 팀 인솔자와 한 명 정도를 지명하여 교대로 서로의 말이 맞는지 질문하기 때문이다. 서로가 입을 맞추면 용이하게 보안검사가 끝나고 입국카드를 받고 짐 검사에 들어가는데 어떤 때는 짐 검사 없이 통과시키기도 한다. 짐 검사에서 제일 많이 걸리는 것이 한국음식이나 누워바에서 사온 대추야자열매 상자다. 대추야자 열매는 공항에서도 가장 많이 검색 당하는 물건이다.

짐 검사가 끝나면 이어지는 입국 수속이 있다. 옛날에는 입국수속서류를 써야했었는데 지금은 이것이 없어져서 그냥 여권만 내밀면 수속 요원이 컴퓨터에 입국사실을 기록하는 것으로 끝난다. 이곳에서 다른 아랍국 방문사실이 발견되면 까탈스러운 질문들이 이어져 피곤해진다. 만약에 다른 아랍국들을 방문하기를 원한다면 입국 스텁프를 여권에 찍지 못하도록 미리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모든 과정이 마쳐지면 입국장 밖에 대기하고 있는 버스에 짐을 넣고 사람들이 버스에 올라 조금 가다보면 바로 국경을 나가는 바리케이트가 있다. 이곳에서 보안요원이 버스에 올라와서 노란 종이(입국카드)를 거둬간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이스라엘에 입국하게 된다. 행복하고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는 이집트와 전혀 다른 분위기와 냄새를 맡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면 된다. 뒤엣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풋대를 향하는 경주자처럼 달려가면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경의 땅으로서 무한한 감동을 주는 이스라엘의 그 모든 것을 만끽하면 된다. 성지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모든 독자 여러분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한다. <계속>

◆서병길 목사는 전북 전주 대학교 법학과 및 행정학 석사, 이스라엘 예루살렘 히브리대학 이스라엘 역사 및 히브리어 수학, 플리선교대학원 선교목회 학 박사이다.

GMS 이스라엘 선교사로 예루살렘에서 12년을 사역하였고, 임마누엘 대학교. 센트럴 신학대학교, 순복음 직영신학교에서 구약과 선교학을 강의하고 있다. 또한 다우니에 있는 골든스테이트 한의과대학에서 한의학 석사를 취득하고 CA 한의사 면허를 받은 후 우리한의원을 운영하며 새하늘선교교회와 이스라엘선교회를 동시에 섬기고 있다.



서병길 목사.

이스라엘선교회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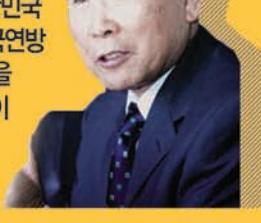
Special Price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100% 천연성분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40여년간 당뇨 연구를 해온 대한민국 대표과학자로 한국인 최초로 미국연방 정부 지원을 받아 당뇨 신약개발을 위해 FDA 2차 임상을 진행하는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전 UCLA 의과대학 연구교수, 미 재향군인병원 수석연구원 세계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등재

당뇨병의 원인

이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항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체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6개월 이상 복용하시면 체장 베타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하는데 PRO-Z GOLD가 해결해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 종류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유지에 그쳤으나 PRO-Z GOLD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 내 몸에서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게 하는 당뇨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솔루션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와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입니다.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타주 대리점 및

프로자셀러모집중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온라인 쇼핑 비지니스

주부, 여자 유학생 환영
주 8~10시간 사용하여 엑스트라 수입을 창출
연락처 T(818)590-6078

Classified AD



Family 자동차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 중고차 최고가 매입 \$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주님미디어넷
전도용품 및
CD
오픈 기념

CD Printing + Paper-Sleeve=\$300
한정판디스플로함 \$65 (봉투를 제외한 전 품목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에 앞장서는 팀미디어에서 귀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랑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성가시 위해 기도하고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 넷경쟁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성가시는 사역과 사업을 성기도록
하겠습니다.

junim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DVD 제작전송, 각종 연예, 연수학, 각종 사업(설비내외, 차량) 제작, 한글문인쇄 전문
junimmedia.com

제작비용은 전자제작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제작됩니다.
제작비용은 전자제작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제작됩니다.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해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업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마이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한의사상

한의사 Zo'e 조애

Tel:(213)718-8275

이제마 사상 체질 맥 30년 전문

체질맥, 장부맥, 병맥, 설진

심혈관 질환, 간질환, 중풍, 소화기문제, 내분비문제, 부인병, 고혈압, 당뇨, 부종, 알러지, 신장병, 각종통증, 갱년기, 생리통, 생리불순 (아들 원하시는 분)

2120 W.8th St. #208, LA, CA 90057(8th& Lake St.) (월수트 예약 필수)

교/회/렌/트

200석 예배실, gated 넓은 주차장, 식당
부엌시설, 유치반, 청년반, 유아반

일요일 예배, 수요일 저녁 사용 가능 (Fwy 5 & 91 근처)

Tel:(626)203-8008, (562)677-6005

BOOK BINDING
DIGITAL PRINTING
BANNER / BOARD
FLYER / BROCHURES
BUSINESS CARDS
BOOKLETS

책자제본
디지털
인쇄전문

EXCEPRINTING 213.383.7733

2500 W. 8th St. #100, 101 Los Angeles, CA 90057

기독일보

기독일보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국제·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877)580-2424
전화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 90248

제 2의 심장 “발” [카이로메아] CHIROMEA

발에 대한 무관심으로 깨어진 신체의 내부 장기 및 근골격계를 이제는 카이로메아로...

인체공학적설계

척추에 미치는 중력을 3방향으로 분산 : 디스크, 관절염 등 척추질환 예방
지속적으로 용천혈을 자극함으로 기력 증진

카이로메아를 착용하셔야 할 분

조금만 걸어도 힘이 있거나 발바닥, 뒤큄치, 무릎 및 허리가 아프다.
발바닥 또는 특정 발가락에 티눈, 군은살이 생기거나 신경이 압박을 받는다.
성장기 어린이의 기형적 걸음걸이의 균형과 성장 촉진이 필요하다.

사용방법

남여 구분없이 표준화 되었습니다

대(L)9 1/2 이상, 중(M)9-6 1/2, 소(S)6 1/20 하



가루간장

SOY SAUCE POWDER

SOY SAUCE POWDER는
유전인자를 변형하지 않은
콩으로만 만듭니다.콩이 95% 들어 있어 영양분이 풍부
No 방부제, No 화학조미료 안심!

골든씰

Golden Seal 천연항생제

골든씰은 악초
로서 (KING OF KINGS)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악초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약효를 지녔다.
항생제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사용하며 감기몸살, 폐렴, 신증풀류,
독감예방, 위장질환, 간염, 간경화, 중이염,
방광염, 습진, 백선 등 각종 염증 피부질환에도
좋음, 특히 마약 중독성에 최고의 해독제로도
알려져 있다.

CHARCOAL

숯가루와 질병 저용

알레르기, 아토피성피부염, 습진에 숯가루 적용
차콜은 인체내의 독성 성분을 제거
가정 상비 식품 필수!

국제 건강 가족 동호회 Tel(213)382-9714, 382-2827

Fax(213)382-2405 244 S. Oxford Ave., No. 2, LA, CA 90004

2nd St.

3rd St.

Oxford Ave.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초스피드 다이어트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습진 화농성 여드름

- ✓ 손가락
- ✓ 발가락
- ✓ 미디관절

*지속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 (자궁축, 하혈)
- TMJ 턱관절 장애

- 우울증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원형탈모, 지속한 비듬
- 만성두통, 유통

*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 예방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3달분 \$60배 빼는 속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100%
천연성분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가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균형세포의 당대사와 체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길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이 CHP를 침기한 신형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제(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에게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제(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 5,997,908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Special
Price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가까운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구입하세요!

방송인 송해선생님이

자신 있게 추천하는 프로조글드

100%

천연성분

<div data-bbox="8

•한수희 칼럼(11)

우리 주위에는 내 탓의 달인들이 있다. 그들은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신과 연관시키며 자책하고 괴로워한다. 전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상황에서도 모든 화살을 스스로에게 돌리고 고통 받기를 자처한다. 그로 인해 상처에 취약한 사람에 되고 만다.

그 생각의 이면에는 마치 온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그들은 상대방의 기분, 태도, 돌연한 행동의 변화가 자신의 행동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기 일쑤다. 몸이 아파서 약속을 미뤄야겠다는 연락을 받을 때 나랑 만나기 싫어서 꾀병을 부린다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표정과 행동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불안해 지기도 한다. 그러나 보니 자신의 기준을 지켜나가기 보다는 다른 사람의 기준을 죄기며 급급하다.

이런 생각과 행동의 뒤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완벽주의, 그리고 열등감이 숨어 있음을 알 필요가 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신호를 자신과 연관시켜 생각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자책감이

심해지고, 부정적인 자기상이 굳어져서 뭔가 잘못을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높아지며, 많은 일에 자신감을 잃고 모든 일을 자기 잘못으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우울증에 빠질 확률 역시 높아진다.

내 탓의 달인들에게 필요한 자세는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그 불완전함을 자신의 무가치함으로 등식화시켜서는 안 된다. 하나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가 자격을 갖춰서도 아니며, 존재 자체로 그저 사랑하셨음을 기억해야 한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신을 찾으려는 불안한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진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으로 발걸음을 돌릴 수 있기를 간곡히 권한다.

그런가 하면, 남 탓의 달인을 역시 있다. 지난 글에서 언급했듯이, 상처를 미묘하게 권력으로 이용하여 주위 사람을 조정하려는 숨은 동기가 있든, 과거의 쓰린 경험 때문에 심리적 방아쇠(trigger)가 고장 나 있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한수희 강사
기독교 상담 세미나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자신에게 심한 상처를 남기는 것으로 종결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남 탓을 할 때 상대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고스란히 내 몸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 하나 분명한 것은 분노와 비난은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으며, '어떻게 그가 나에게 이럴 수 있지?'라는 질문 대신 자신의 내면을 바라볼 때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상담실을 찾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상처받은 사람이라고 상담실을 방문하지, 내가 상처를 준 것 때문에 괴로워서 상담을 받겠다고 오는 경우는 거

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자신이 주는 상처와 받는 상처를 분리하지 않고 무조건 상처받은 피해자라고만 생각하면 실제로 그 사람은 어딜 가도 계속 상처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당신은 왜 자꾸 남 탓을 하며 화를 냅니까? 화를 내는 것이 당신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 질문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 그 질문 대신에 우리가 먼저 꼭 알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들은 너무 아파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이다. 차리리 자신이 아프다고 연약한 모습이라도 보이면 대

는 걸 받아들이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수치심, 두려움을 격렬한 분노로 표현하고 타인을 원망하는 것으로 대처한다.

무엇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고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 확인하려고 하기보다는 무조건 분노하고 경멸하는 쪽을 택한다. 상처받는 고통과 두려움, 수치심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상처 자체를 무효화하려는 일종의 몸부림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파괴적인 분노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바로 '나'라는 사실이다.

내가 상처받고 고통 받는 것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니 나를 탓하고 남을 탓하는 것으로 성급하게 결론지리려고 하지 말자.

대신에 내가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상실한 것이 무엇인지 그저 잠자리에 들여다 보는 시간을 제발 갖자.

책임 소재를 따져서 분노의 대상을 자신에게 돌리거나 타인에게 돌리는 대신,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외면하지 말고, 바라보고 보듬어 보자. 부디 하나님과 함께….

•김광연 칼럼

‘김영란법’ 통과와 클린 사회(Clean Society)



김광연 이사
한국생명윤리학회

이 사회는 투명한 과정과 절차보다 성장을 위한 결과가 중요했고 마침내 ‘결과지상주의’를 낳고 말았다.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이 마침내 오랜 논쟁 끝에 헌법재판소의 합헌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은 한국의 윤리의식의 부재상황을 단면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빠른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면 공정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윤리의식을 외면했다. 성장과 이윤 추구를 위해서라면 윤리적 판단과 의식은 안중에도 없었다. 이로 인해 사회 곳곳이 비리와 부정 그리고 청탁과 뇌물로 병들어 가고 있었다. 특히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할 고위 공직자와 언론인, 교육학자들 포함해서 이 사회 구성원 다수가 비리와 청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정의란 무엇인가?
조나단 에드워즈(J. Edwards)는 온전한 도덕적 삶은 인간이 만든 규칙과 법 체계에 단순히 표면적으로 순응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인간의 규칙과 제도를 넘어 포괄적인 마음의

행동이 중요하다고 했다.

예수님도 당시 율법자들을 비판하고 입술로는 찬양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예수는 마음의 행동이 도덕적 행위의 근원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친 것은 나의 마음에서 비롯된 온정이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확산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올바른 것과 도덕적인 것이 외부의 제도나 규칙에만 무조건 의무적으로 따르기 이전, 마음과 타자에 대한 사랑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가르친다.

マイ클 샌델(M.Sandel)은 『정의란 무엇인가?』의 책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이 주제는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샌델을 세

계 석학 반열 이상으로 대접하는 시대가 있었다. 당시의 인기가 이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한국 사회가 그 만큼 정의롭지 못했다는 것과 정의에 목말라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였다. 그동안 사회 시스템의 투명하지 못한 과정과 공직자들의 비리 등으로 사회는 몸살을 앓았다. 샌델은 ‘정의란 무엇인가?’를 제시하면서, 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빈익빈 부익부, 불공정,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자본주의를 비판했다.

특히 그는 “정의란, 윤리, 합법성, 법률, 자연법, 종교, 공정함 등 윤리의 위배에 따른 처벌 등에 바탕을 두고 내리는 도덕적 옳음(righteousness)의 개념”으로 보았다. 샌델은 정의 속에 특히 ‘분배 정의’를 제시하고 형식적인 정의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덕(virtue)과 ‘좋은 삶’에 기여할 수 있는 결정이 정의로운 것이라 제시했다. 샌델이 말한 공동체의 덕은 개인의 지나친 행복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행복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전체의 유익하고도 연결된다는 것에 주목했다. 샌델은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위해서는 부패와 청탁이 없어야 하고, 공정한 분배에 따른 정의로운 사회

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영란법과 클린 사회(Clean Society)

헌법재판소가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김영란법의 당위성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일부 조항에서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개정작업을 통해 조정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이제 한국 사회는 부패 척결과 부정청탁의 그늘에서 벗어나 새로운 클린 사회(clean society)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이 사회는 제도적 장치와 규제에만 지나치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 정비 이후 보편적인 인류애를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보다 더 성숙한 도덕적 사회는 제도나 별금 때문에 ‘윤리적 삶(ethical life)’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타자의 상호 관계 속에서 서로 이해해 주고 돋는 ‘사랑’과 ‘보살핌’에서 비롯된 윤리의식이 자리 잡히는 곳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나의 존재감이 소중한 것처럼 타자의 존재감 역시 소중하고 나처럼 그들도 대우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콧물빼기 시럽으로 환자가 치료 받는 모습

항상 코가 막혀있고
아침이면 콧물을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체험사례1 9세 여아

콧물빼기를 하니 너무 많은 코가 빠져 나왔다. 환자가 침을 맞으려 하지 않아 별효 한약인 ‘코편해환’을 복용하면서 1주일에 두번씩 치료를 받았다. 치료 5번이 끝난 후, 환자 부모가 “이젠 저녁에 잠을 잘 때 입을 벌리지 않고 코로 숨을 쉰다”면서 너무 좋아했고, 10번이 끝나자 상태가 너무 좋아졌다.

비염, 축농증 지긋지긋한 콧병 치료는 콧물빼기 치료가 해답!

오랜 시간 비염과
코 막힘으로 냄새도 못 맡는 현자

체험사례2 여대생

어릴 때부터 잠을 잘 때 입으로 숨을 쉬다 보니 아침이면 입이 말라 많은 고생을 했다. 1주일에 두 번씩 내원, 콧물빼기와 침 치료를 병행했고 6번 치료후엔 자신도 모르게 코로 숨을 쉬면서 자게 됐다. 그래도 완전히 고치겠다고 15번 정도 내원해 치료를 받았다. 모든 치료가 끝난 후엔 코로 숨쉬는 것이 너무 좋다면서 머리가 맑아져서 공부에 집중이 잘 된다고 했다.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복새통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잠언 8:10)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 추천

마틴 로이드 존스

이안 머레이 | 복있는 사람 | 799쪽

탁월한 전기 작가
이안 머레이와 20
세기 최고의 설교
자 마틴 로이드 존
스가 만났다. 저자
는 자신이 이전에
쓴 로이드 존스의
전기 두 권을 재구
성하고, 압축하고, 부분적으로 새롭게
재집필하여 오늘의 세대를 위해 내놓는
다. 기존의 저서가 집필된 이후 로이드
존스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뒤따랐는데,
저자는 이에 대해서 사실에 근거한 숙고
를 덧붙였다.



구약성경의 정수

트럼퍼 롱맨III | CLC | 33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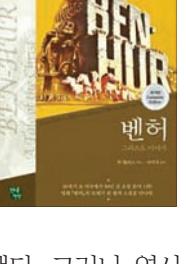
구약성경의 메시지
에 익숙해지고 구약
성경이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지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의 삶과는 어떤 연
관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된
성경공부 교재이다. 구약성경에서 발
췌한 17가지 본문을 4가지 항목을 통
해 연구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편집했
다. 구약성경의 전체적인 내용과 메시
지를 일목요연하게 살펴보고 실제 우
리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데 유익하다.



벤하(완역판)

루 월리스 | 현대지성사 | 81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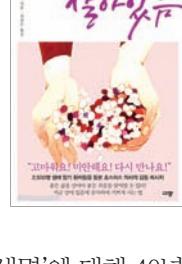
월리스가 『벤하』
를 쓸 당시만 해도
소설은 단순히 '오
락적' 요소로만 간
주되어 논픽션보다
저급하며 도덕적으
로 교훈적이기보다
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그러나 역사
적 사실과 종교적 사실에 충실히 심
혈을 기울인 이 작품으로 훌륭한 소설
작품은 오락적인 재미를 주는 동시에 교
육적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 책
의 모티프는 성서 이야기에 기인한다.



살아 있음

가시와기 데쓰오 | 규장 | 248쪽

저 사람은 왜 저렇
게 평안해 보일까?
인생을 어떻게 행복
하게 살 수 있을까?
생애 말기 환자들을
돌본 호스피스 의사
의 감동 메시지. 하
나님이 우리에게 준
가장 소중한 선물인 '생명'에 대해 40년
간 크리스천 호스피스 의사로 2천 5백
명의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돌보며 느
낀 소중한 깨달음을 따뜻하게 풀어낸
다. 또한 그림과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수채 칼리그래피도 돋보인다.



REVIEW

“탁월한 지도력을 위한 4가지 핵심 원리”

존 스토트는 어떻게 진정한 리더의 면모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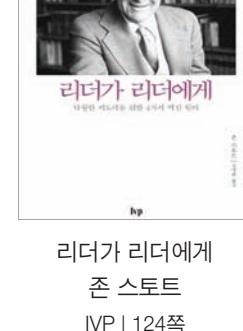
그리스도인 리더들은 곧잘 한계
에 직면한다. 사명은 크고 무겁지
만 이를 감당할 능력은 보잘것 없
다. 크든 작든 누군가를 이끄는 위
치에 선 리더에게 사역은 여간 녹
록하지가 않다. 다른 사람을 지도
하기는커녕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겹다. 리더들을 옥죄는 수많은
문제들에 시달리다 보면 제대로 가
고 있는 것인지 염려와 불안이 엄
습한다.

그러나 리더들이 겪게 되는 어려
움이 단지 연약한 개인의 부족함
때문만은 아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리더의 위치에 선 그리스도인이라
면 누구나 다루어야 하는 영속적인
도전이다. 한때 한국교회의 리더로

세간의 주목을 받던 이들 중에 이
러한 도전에 잘 대응하지 못하고
실망스럽게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
해 추락한 인물이 적지 않다. 이토
록 오래되고 날마다 새로운 난제들
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존 스토트는 겨우 29살의 나이에
영국 런던의 올 소울즈 교회의 관
할 사제로 임명받아 30여 년간 강
력하고 혁신적인 목회 사역을 수행
했으며, 반평생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의 리더라고 불리며 엄청난 영
향력을 끼치면서도 어떠한 오점도
남기지 않았다. 존 스토트는 어떻
게 한결같이 진정한 리더의 면모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리더가 리더에게』



리더가 리더에게
존 스토트
IVP | 124쪽

를 통해 접할 수 있다. 이 책은 1985
년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린 국제복
음주의기독학생회(IFES) 남미 지
역 간사 수련회에서 존 스토트가

했던 일련의 강연을 기반으로 하
고 있다. 이 귀중한 강의안은 30년
만에 새롭게 발굴되어 2014년에야
영어로 처음 출간되었으며, 이번에
한국어 번역판이 출간됐다.

이 책에서 존 스토트는 리더가
직면하는 실제적인 어려움을 4가
지로 짚어내고, 탁월한 성경 주제
와 진솔한 경험을 바탕으로 흥미로
운 예화를 더하여 리더에게 닥쳐오
는 문제를 돌파해 나갈 리더십의
핵심 원리를 제시한다.

이에 대해 존 스토트의 디모데
였던 마크 래버튼과 코리 위드먼
의 이야기는 존 스토트의 가르침과
실천이 실제로 얼마나 통합되었는
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생생한 증언

이다. 또 부록에는 존 스토트가 사
고 있다. 이 귀중한 강의안은 30년
만에 새롭게 발굴되어 2014년에야
영어로 처음 출간되었으며, 이번에
한국어 번역판이 출간됐다.

존 스토트는 그리스도인 리더가
맞닥뜨리는 문제들을 4가지로 짚
하고 이를 풀어 나갈 원리와 방안
을 제시한다. 즉 암박감을 견뎌 내
는 '나심 극복'의 원리, 영적인 생기
를 유지하는 '자기 훈련'의 원리, 사
람들을 존중하는 '관계'의 원리, 짧
은 나이에 리더가 되는 '권위'의 원
리를 전한다.

짧지만 알찬 이 책은 오늘의 그
리스도인 리더들에게 꼭 필요한 지
혜와 용기를 줄 것이다.

이영인 기자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전화 1-877-580-2424 샘우스 (310)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리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북뉴스 칼럼]

“상처의 치유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앙은 추상이 실상으로 드러날 것을 믿는 것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상처를 입는다. 이러한 상처가 우리의 영육을 아프게 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 상처가 심화되면 한(恨)이 되어 급기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볼 때 참 많은 시련들을 겪어 왔다. 중국을 대국으로 섬기면서 기를 폐지 못한 때가 많았고,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 등 이웃나라 일본으로 인해 많은 시달림을 당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6·25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기도 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민족은 한(恨)이 많은 것 같다. 서양 사람들은 낙천적인 경우가 많아서, 상처를 깊이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고 한다. 필자가 만난 필리핀 사람들은 만 하더라도, 자신의 상처를 가슴에 쌓아두고 살지는 않았다. 대부분의 필리핀 사람들은 무척 가난하지만 행복지수는 대단히 높다. 일가친지들을 초대해 파티를 즐기고 함께 담소를 나누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다. 그만큼 상처를 안에 쌓아두기보다는 풀어버릴 기회가 많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인들은 자신의 상처들을 치유하지 못한 채 가슴에 쌓아두고 사는 것 같다. 우리는 친구 관계, 이웃과의 관계 등 수많은 대인관계를 통해 오는 상처들을 한(恨)으로 발전시키는 듯하다.

이 한(恨)을 풀기 위해 어떤 이는 취미생활이나 모험을 즐기거나, 격한 운동을 하기도 한다. 심지어 도박이나 마약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떤 이들은 이런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적인 세계로 들어가지만, 엔나간 구도자의 길을 가기도 한다. 과연 이런 것들이 근원적인 문제해결 방법일까?

우리 인간들의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왜 사는지, 내 삶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힘과 출동력이 있어야 한다.

필자가 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할 때 아주 흥미 있는 소설을 읽은



채천석 대표
크리스챤북뉴스

적이 있다. 조지 엘리오토라는 영국 소설가가 쓴 〈사일러스 마너〉라는 책이다. 그 책의 줄거리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사일러스 마너는 동네 교회의 두 회계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는 교회 교인 중 한 사람과 결혼하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 현금이 분실되었고 이 분실된 현금이 사일러스 마너의 집에서 발견된다. 결국 동네 사람들은 사일러스 마너를 동네에서 내쫓았고, 그는 약혼녀와도 헤어져야 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 자신의 약혼녀가 또 다른 회계 집사와 결혼하는 것을 보고서 충격에 빠져, 그는 베를 앞에서 웃을 짜며 남은 생을 살게 된다. 그는 친구의 배신을 곱씹으면서도, 웃을 짜며 돈을 버는 재미에 빠져 마음의 상처를 달래게 된다. 그는 교회도 나가지 않았고, 모든 인간관계를 끊었다.

그런데 어느 추운 눈 오는 겨울 날 한 아기가 그의 집으로 기어 들어왔다. 그가 밖으로 나가보니 한 아주머니가 눈길에 쓰러져 싸늘한 시체로 변해 있었고, 아기가 죽은 엄마의 품을 빼져나와 사일러스 마너의 집으로 들어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사일러스 마너는 이 아기를 하나님으로 자신에게 주신 선물로 알고, 직접 키우기로 한다. 그는 아기에게 유아세례를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교회에 다시 나가게 됐고, 아기로 인해 다시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된다. 그리고 그는 그 때 까지 모아둔 돈을 아기와 이웃을 위해 쓰기로 한다. 이리하여 그의 망가졌던 인간성이 다시 회복된다. 소설에서 조지 엘리오토는 아기로

상징되는 예수님을 전한 것이다. 우리 마음 안에도 상처가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여 이 상처가 점점 심화되어 한(恨)으로 자리하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이 한이 우리의 육체까지 상하게 하고 있지는 않나?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려 놓으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상처와 한을 우리 주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온다. 이 여인은 남편을 여섯이나 만나는 쓰라린 아픔을 겪었다. 그녀는 동네 아낙네들과 같이 물을 길러 다니지 못할 만큼 소외돼 있었다.

이런 그녀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알고 새 힘을 얻게 되었다. 당장 동네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 사실 전도가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듯 전도에 결실이 맺어졌다는 것은, 이 여성이 자신의 상처로 인한 한을 풀고 신명나게 살게 되었음을 암시한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상처와 한을 풀어주고 우리를 신명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상처와 한을 극복하고 힘차게 살게 하신다. 그러나 그 옛날 예수 한 분만으로 죽었던 우리의 신앙이, 요즈음은 너무 복잡해졌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이라는 우리 믿음의 토대였던 것들이 많이 훼들리고 있다.

신앙은 사실상 매우 단순하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문제를 치유하실 분이란 고백이 기독교 신앙이다. 짧았을 적에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원에 들어가 예수님을 찾던 그 신앙이, 요즈음은 왜 이런 낯설게 여겨질까?

요즘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상처를 치유하려는 경향이 있다. 당면한 교회의 문제들도 그저 인간적인 방법들로 해결하려고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함께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문제까지도 예수께서 친히 치유하실 수 있다.

이런 말이 그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신앙은 추상이 실상으로 드러날 것을 믿는 것이다. 상처와 한으로 인한 육체의 고통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고쳐진다. 예수님이 내 문제의 해결자다. 이런 단순한 믿음이 무시한 것으로 치부되지 않을 때가 그립다.

[북스리뷰]

“십대들을 위한 쉬운 인문학”

주도적으로 세상과 역사를 바꾼 인물들의 삶 소개



십대를 위한 이지 인문학
최민성
디스커버리미디어 | 232쪽

알아야 할 인문학 주제를 모아 책으로 엮었다.

이 책은 공자, 맹자, 사마천, 유비, 제갈량 등 스스로 새로운 비전을 창조하고 주도적으로 세상과 역사를 바꾼 인물들의 삶을 담고 있다. 책 속 인물들의 삶에 접근함으로써 청소년들은 꿈과 미래를 설계하는데 필요한 힌트와 깊은 영감을 자연스럽게 얻게 될 것이라 최 교수는 설명했다.

특히 이 책은 ‘갈택이어’, ‘절영지회’, ‘관포지교’ 등 인물들의 삶과 생각을 고사성어에서 가려 뽑았다. 고사성어에서 뽑은 인물과 주제에 사건과 스토리를 입히고 드라마적 요소까지 보태 극적이고 몰입감이 남다른 스토리텔링을 완성한 것. 글을 대화체로 구성해 마치 멘토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을 심어주며, 주제와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뇌리에 자리 잡게 된다.

최민성 교수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과 다른 세상에서 살기 바라는 마음에 선인들의 지혜, 유익한 이야기, 고사성어의 틀을 빌려 제 마음을 전했다”라며 “이 책으로 아이들의 비전이 완성되지는 않겠지만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짐작은 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인도 선교의 두 갈래 길 제시”



두 갈래 길
이계철
밀알서원 | 200쪽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운동이다. 서양문화로 종교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현지문화를 깊이 존중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운동이다.

현지 기독교인들과의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 쌓았던(가정교회), 현지 용어 사용하기, 이야기로 예수님 전하기(스토리 텔링) 등 현지 문화를 이용한 성육신적 전도방법을 소개한다.

이 책은 현지인들에게 깊이 들어가 기꺼이 친구와 멘토가 되어 주는 모습, 제3자로서 비난이 아닌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며 기도로 섬겨주는 태도, 문화를 인정하고 배려해주는 모습, 그리고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지혜를 보여 잔잔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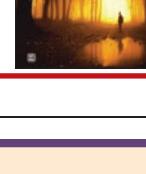
저자 이계철은 현재 한국 예수전도단 파송 선교사로 인도 바라나시에서 가정교회개척선교를 하고 있으며, 최전방선교학교(SOFM, 학숙 3개월) 학교장으로 사역하고 있고, 최전방선교 코디네이터(조정가)도 돋고 있다. 이영인 기자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코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요즘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상처를 치유하려는 경향이 있다. 당면한 교회의 문제들도 그저 인간적인 방법들로 해결하려고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함께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문제까지도 예수께서 친히 치유하실 수 있다.

이런 말이 그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신앙은 추상이 실상으로 드러날 것을 믿는 것이다. 상처와 한으로 인한 육체의

고통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고쳐진다. 예수님이 내 문제의 해결자다. 이런 단순한 믿음이 무시한 것으로 치부되지 않을 때가 그립다.

이런 말이 그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신앙은 추상이 실상으로 드러날 것을 믿는 것이다. 상처와 한으로 인한 육체의

고통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고쳐진다. 예수님이 내 문제의 해결자다. 이런 단순한 믿음이 무시한 것으로 치부되지 않을 때가 그립다.

이런 말이 그저 추상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신앙은 추상이 실상으로 드러날 것을 믿는 것이다. 상처와 한으로 인한 육체의

고통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고쳐진다. 예수님이 내 문제의 해결자다. 이런 단순한 믿음이 무시한 것으로 치부되지 않을 때가 그립다.

이런 말이 그저 추상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신앙은 추상이 실상으로 드러날 것을 믿는 것이다. 상처와 한으로 인한 육체의

고통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고쳐진다. 예수님이 내 문제의 해결자다. 이런 단순한 믿음이 무시한 것으로 치부되지 않을 때가 그립다.

이런 말이 그저 추상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신앙은 추상이 실상으로 드러날 것을 믿는 것이다. 상처와 한으로 인한 육체의

고통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고쳐진다. 예수님이 내 문제의 해결자다. 이런 단순한 믿음이 무시한 것으로 치부되지 않을 때가 그립다.

이런 말이 그저 추상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신앙은 추상이 실상으로 드러날 것을 믿는 것이다. 상처와 한으로 인한 육체의

고통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고쳐진다. 예수님이 내 문제의 해결자다. 이런 단순한 믿음이 무시한 것으로 치부되지 않을 때가 그립다.

이런 말이 그저 추상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신앙은 추상이 실상으로 드러날 것을 믿는 것이다. 상처와 한으로 인한 육체의

고통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고쳐진다. 예수님이 내 문제의 해결자다. 이런 단순한 믿음이 무시한 것으로 치부되지 않을 때가 그립다.

이런 말이 그저 추상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신앙은 추상이 실상으로 드러날 것을 믿는 것이다. 상처와 한으로 인한 육체의

고통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고쳐진다. 예수님이 내 문제의 해결자다. 이런 단순한 믿음이 무시한 것으로 치부되지 않을 때가 그립다.

이런 말이 그저 추상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신앙은 추상이 실상으로 드러날 것을 믿는 것이다. 상처와 한으로 인한 육체의

고통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고쳐진다. 예수님이 내 문제의 해결자다. 이런 단순한 믿음이 무시한 것으로 치부되지 않을 때가 그립다.

이런 말이 그저 추상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신앙은 추상이 실상으로 드러날 것을 믿는 것이다. 상처와 한으로 인한 육체의

고통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고쳐진다. 예수님이 내 문제의 해결자다. 이런 단순한 믿음이 무시한 것으로 치부되지 않을 때가 그립다.

이런 말이 그저 추상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신앙은 추상이 실상으로 드러날 것을 믿는 것이다. 상처와 한으로 인한 육체의

고통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고쳐진다. 예수님이 내 문제의 해결자다. 이런 단순한 믿음이 무시한 것으로 치부되지 않을 때가 그립다.

이런 말이 그저 추상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신앙은 추상이 실상으로 드러날 것을 믿는 것이다. 상처와 한으로 인한 육체의

고통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고쳐진다. 예수님이 내 문제의 해결자다. 이런 단순한 믿음이 무시한 것으로 치부되지 않을 때가 그립다.

이런 말이 그저 추상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신앙은 추상이 실상으로 드러날 것을 믿는 것이다. 상처와 한으로 인한 육체의

고통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고쳐진다. 예수님이 내 문제의 해결자다. 이런 단순한 믿음이 무시한 것으로 치부되지 않을 때가 그립다.

이런 말이 그저 추상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신앙은 추상이 실상으로 드러날 것을 믿는 것이다. 상처와 한으로 인한 육체의

고통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고쳐진다. 예수님이 내 문제의 해결자다. 이런 단순한 믿음이 무시한 것으로 치부되지 않을 때가 그립다.

이런 말이 그저 추상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신앙은 추상이 실상으로 드러날 것을 믿는 것이다. 상처와 한으로 인한 육체의

고통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고쳐진다. 예수님이 내 문제의 해결자다. 이런 단순한 믿음이 무시한 것으로 치부되지 않을 때가 그립다.

이런 말이 그저 추상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신앙은 추상이 실상으로 드러날 것을 믿는 것이다. 상처와 한으로 인한 육체의

고통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고쳐진다. 예수님이 내 문제의 해결자다. 이런 단순한 믿음이 무시한 것으로 치부되지 않을 때가 그립다.

이런 말이 그저 추상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신앙은 추상이 실상으로 드러날 것을 믿는 것이다. 상처와 한으로 인한 육체의

고통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고쳐진다. 예수님이 내 문제의 해결자다. 이런 단순한 믿음이 무시한 것으로 치부되지 않을 때가 그립다.

이런 말이 그저 추상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신앙은 추상이 실상으로 드러날 것을 믿는 것이다. 상처와 한으로 인한 육체의

고통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고쳐진다. 예수님이 내 문제의 해결자다. 이런 단순한 믿음이 무시한 것으로 치부되지 않을 때가 그립다.

이런 말이 그저 추상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신앙은 추상이 실상으로 드러날 것을 믿는 것이다. 상처와 한으로 인한 육체의

고통

Tel. 213-739-0403

www.christianitydaily.com

THURSDAY, August 4, 2016 Vol. 63

Pastors Can Help to Prevent Further Cases of Domestic Violence, Too

Non-profit to provide sponsored training program specifically for pastors, seminary students

BY RACHAEL LEE

Domestic violence is an issue that strikes close to home for many in Los Angeles, particularly in the Asian American community. According to an LA Times report in October of 2015, police in Los Angeles respond to an average of 48,000 calls regarding domestic violence each year, and a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s Angeles study published in May of 2015 says immigrant Korean families are most likely to experience domestic violence out of all Asian American ethnic groups.

As a result, pastors are more likely than not to encounter a domestic violence situation happening within the homes of their congregants. But are they prepared to handle the situation wisely?

A non-profit in Los Angeles will be providing a sponsored training program this fall to equip pastors and seminarians with the knowledge they need to not only provide appropriate help to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but also be able to spread awareness of it and help prevent further cases.

The training, called the '40 Hour Domestic Violence Advocate Training' program, is organized and led by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s (KFAM), and spon-

sored by the Blue Shield Foundation. Though this year's class for the 40-hour training program had already been selected, the Blue Shield Foundation has provided additional funding for two more pastors to be added to the class. Normally, such a training program would cost \$400 per student, KFAM says.

Participants will be able to learn more on topics including the history of domestic violence; child abuse; violence in dating among teens; the responsibilities of the perpetrator; counseling and support for the victim; safety measures; legal support; and others. KFAM is an officially recognized training facility by the state, and those who complete the training will receive certificates of completion.

The training will take place in two terms, with the first term taking place between August 12 to September 2, and the second taking place between October 19 to November 9. Participants must attend both training terms, and sessions will take place on Wednesdays and Fridays between 1 to 4 PM.

Those who are interested must apply by August 7, and must submit a resume and cover letter to dkim@kfamla.org.



Rev. Catherine Lee-Park and Rev. Danny S. Park will be launching Campus Compass Mission Church in the University of Georgia this fall.

An 'Alternative' Form of Church Within the College Campus

BY ANDERSON KIM
TRANSLATED BY RACHAEL LEE

A church for Korean American students in the University of Georgia (UGA), located in Athens, GA, will be launched this fall, called Campus Compass Mission Church (C2M). The first worship service will be on August 14, and will take place in the Presbyterian Student Center. Pastor couple Rev. Danny S. Park and Rev. Catherine Lee-Park, who have been serving younger and older adults both in Korean and multi-ethnic churches for more than 25 years, will be serving as the lead pastors of the church.

"There are about 1,000 Korean American students at UGA (excluding international students), but they don't have a place to worship," the couple said in an interview, explaining that that became the reason they decided to begin the C2M ministry.

"Two people in their fifties trying to serve and raise up young twenty-somethings on campus is not an easy task, with the age and culture

differences," said Catherine Lee-Park. "We have been aware of the situation in the UGA campus and praying about it, waiting, and thinking, 'Some day, someone would come here.' But God placed conviction in our hearts and made our circumstances so that we had no choice but to come here ourselves."

Calling C2M an 'alternative church' for those whose church involvement may be hindered by distance or proximity, Catherine Lee-Park explained that she and her husband aim to minister to those students on campus who may have gone to church with their parents, but stopped attending once they were on their own in college; those who may want to go to church but may not have a car or transportation means to go to church; or those who do not have any faith at all.

For the first year, the two pastors plan to focus on worship and settling down, and then slowly begin what they call 'life to life' discipleship. They also plan to do leadership training with the students, so that by the time they graduate, the students would be depend-

able leaders to serve the church, whether C2M or any other local church. Hence, the two lead pastors decided to make the church non-denominational, to allow the students to go on to any other church of their choice.

"Many Korean churches might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campus ministry, but may find it difficult to directly participate in it because of distance or financial reasons. We may be the start, but we don't think of this as our church. We are simply the ones who are starting things -- and once the ministry sets its foundation in about five years, we believe it's also our role to help the younger and even more capable ministers who will come after us to be prepared to serve," the two pastors said. "If the churches in Atlanta could work together with us for this one purpose, for this ministry for the next generation, then four years later, these students will return to their home churches having matured much more spiritually. Please pray for us, send your children to us, and support us financially as well."

Over One Year After He Was Stabbed by a Stranger, One Campus Ministry Staff Continues Sharing the Gospel

BY SE KYU JANG
TRANSLATED BY RACHAEL LEE

Over a year after an accident that almost took the life of Eugene Choi, a video in which Choi shares his testimony of the ways he has been encountering God throughout the recovery process has been touching the hearts of many people.

In May of 2015, Choi was receiving training as a new staff of SOON Movement (also known as Korea Campus Crusade for Christ), and was near the ministry's previous Los Angeles office location, when a stranger came up behind him and asked, "Are you Korean?" and stabbed Choi five times. Choi, whose lung was punctured and

spinal cord was lacerated, told the stranger, "Believe in Jesus." Since then, Choi's life was never the same. But he has been carving out a path of even greater hopes and dreams than before.

Choi (26), who has been serving as a staff with SOON Movement for about one year, has also been serving on the ministry's worship team, playing electric guitar. I spoke with Choi on the Internet on July 28, and through his responses, I was able to feel the powerful work of the Holy Spirit.

"As much as it was painful, it was an opportunity for me to experience God's love toward me, and I think I was able to experience his grace and blessings that much more," said Choi, referring

to the recovery process. "It has been hard, but I've been crying to God and depending on Him a lot, telling Him how I honestly feel."

Choi, who said his favorite verse in the Bible is Hebrews 12:2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the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 who for the joy set before him endured the cross, scorning its shame, and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of God"), said that he will continue to focus on physical recovery, and to serve on college campuses as a staff.

Currently, Choi is serving at California State University, Fullerton (CSUF), sharing the gospel and leading students in discipleship training.

"I'm ready to go wherever God

leads," said Choi. His words in the video testimony are powerful:

"I feel very useless, sometimes abandoned. Many times it seems like I have no future. So I resent the perpetrator, but I know that God loves him too. And I was thinking, there might be nobody who can pray for him, except me."

"So there's always sinful nature versus heavenly nature versing each other. I want to hate him, versus I want to love him. Nowadays, I ask God a lot of questions, but one of the questions I asked is, 'God, what can I do?' And God asked me back, 'Eugene, what do you have?' And I looked down, and I looked at my body, and I told God, 'God, this body is the only thing I have



(Photo courtesy of Eugene Choi)

right now. Broken, disabled, and it's useless, but will you still take it and use it? The only thing I have right now is brokenness. Broken life, broken body. But will you still use it?"

Asian Americans to Gather for Interfaith Prayer Forum Ahead of Presidential Town Hall

BY RACHAEL LEE

An interfaith prayer forum for the Asian American community will be taking place in Las Vegas on the morning of the Asian Pacific Islander (API) Presidential Town Hall on August 12.

The prayer forum, which is hosted by Korean Churches for Community Development (KCCD) and other faith leaders, will be at the Caesars Palace Hotel from 9 to 10:30 AM, while the Presidential Town Hall, hosted by Asian and Pacific Islander American (APIA) Vote and the Asian American Journalist Association (AAJA), will be at the same location from 1 to 4 PM. Both events are free, and

presidential candidates Hillary Clinton and Donald Trump have been invited to speak at the Town Hall meeting.

"The API Presidential Town Hall Interfaith Prayer Forum is open to all, and is aimed at providing voice for AAPIs from faith-based and moral perspectives," said KCCD in a statement. "We invite you to join us to pray for our nation, our nation's leaders and for the upcoming election in November. After the Town Hall session in the afternoon, we plan to develop faith-based responses to the issues raised by the AAPI community. We welcome leaders of other faith traditions to join in the planning and coordination of this event."

Reverend David B. Oh, the senior pastor of Southern California Bethel Church in Buena Park, was inaugurated as this newspaper's first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I will do my part in the background to help Christianity Daily to share about Jesus, to help the churches and members of the church who believe in Jesus to become one, and to rebuke but also lead the world by sharing the gospel," said Rev. Oh during the inaugural ceremony which took place on July 31 at Southern California Bethel Church.

Leaders of several Korean Christian organizations were gathered at the inaugural ceremony, including the president of the Southern California Korean Ministers' Association, the vice

Christianity Daily Inaugurates First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Rev. David Oh (left) and Christianity Daily CEO John Lee (right) pose for a picture during the inaugural ceremony on July 31.

president of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Orange County, and the president of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Oh graduated from Sungkyul University in South Korea, and also

studied theology in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Azusa Pacific University, and Houston Graduate School of Theology, and has served as a pastor in the Korean immigrant church context for some 40 years.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2

T. (949) 385-3051 / www.occhristianity.com

PASTOR JUSTIN KIM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Sunday School: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church

PASTOR SUNG CHANG



Sunday Services: 11 AM & 12:30 PM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2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Koreatown Community Organizers Advocate for Community Center

BY CHRISTINE KIM

A number of Los Angeles-based non-profit organizations along with members of the community gathered on Tuesday, August 2 to garner support for a community center to be included in the layout of a development project which includes new office spaces and apartment units in Koreatown.

The project is to be constructed on Vermont Avenue and Shatto Place between 4th and 6th Streets.

"Koreatown is one of the most densely populated areas of the city, yet is among the most park-poor and community-resource poor areas," Lois Arkin, founder of Cooperative Resources & Services Project (CRSP), the developer of Los Angeles Eco-Village, said. "It is also one of the most polluted areas with a high population of children and seniors."

A parks assessment report showed that Koreatown has a lack of parks. Koreatown currently has 0.1 park acres per 1,000 people, which is lower than the Los Angeles County average of 3.3 park acres per 1,000 people.

The proposed Koreatown Arts & Recreation Center would be a 30,000 to 40,000 square-feet facility consisting of a pool area, basketball area, and



Advocates for the Koreatown Arts & Recreation Center hosted a press conference on August 2.

various spaces for senior activities, performing arts classes, sports, and fitness programs. It would also accommodate after-school programs for students attending LAUSD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in the neighboring area.

The project has currently secured one million dollars of the 10 million needed to make the recreation center a reality. An L.A. County Board of Supervisors meeting will be held on August 9th, a meeting which advocates hope will secure the final vote to approve the com-

munity center as part of county's redevelopment plan.

"There will be a public comments section that will be made possible in Korean and Spanish during which members of the community can directly connect with the board," Steve Kang, executive director of the Korean American Coalition, said. "We believe it will be approved on Tuesday and we need community members to attend the meeting to show their support for the community center."

Immigration Reform Advocates and Government Officials Encourage Asian Community to Seek Relief in DACA

BY CHRISTINE KIM

On Thursday, July 28, advocates of immigration reform and White House officials gathered to discuss the significance of the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 for the Asian American Pacific Islander community and to encourage those eligible to apply for the program.

A similar program was announced by President Obama via executive order in 2014 called the Deferred Action for Parents of American and Lawful Permanent Residents, or DAPA, that would have offered protection from deportation and a renewable three-year work permit to parents with children who are U.S. citizens or permanent residents. DAPA, however, was blocked by the Supreme Court's 4-4 ruling in late June of 2016, resulting in a non-decision that affirmed the lower court decision to block the program.

The gathering was held about a month after the Supreme Court's non-

decision and advocates expressed that they wanted to reassure community members that the 2012 DACA program is still in place.

The 2012 DACA program allows eligible undocumented individuals who came to the United States as young children to receive work permits and temporary exemption from deportation.

According to the Migration Policy Institute (MPI), over 1.1 million people in the U.S. are eligible to apply for DACA.

Within the AAPI community, over 130,000 undocumented individuals are eligible to apply for the program, according to a 2014 survey by the U.S. Census Bureau. However, only 14.6 percent of those eligible have applied.

"We want to know why these numbers are so low," said Reva Gupta, Senior Policy Advisor at the White House Initiative on Asian Americans and Pacific Islanders.

There are approximately 138,000

undocumented AAPIs in Los Angeles County, 16,000 of whom are eligible to request DACA, according to MPI. The largest populations come from the Korean (6,000), Chinese (3,000), Filipino (3,000), and Indian (1,000) communities.

"For DACA recipients, two out of three have found jobs with better pay and over half have found work that better aligns with their education and training. DACA recipients also saw a 45 percent increase in wages," Gupta said, referring to a recent survey by the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and the National Immigration Law Center.

Martha Flores, Chief of Staff at the Los Angeles District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warned applicants from seeking assistance from those perpetrating immigration scam, encouraging those interested to seek legal advice from authorized personnel and to visit uscis.gov for free resources.

of Americans were "upscale" or had an annual household income of \$75,000 or more, and 13 percent were "downscale" with annual income of \$20,000 or less.

In other cities that were highly generous as well, the proportion of "downscale" people was higher than the "upscale" ones, with the exception of Milwaukee where "upscale" people (12 percent) outnumbered the "downscale" population (10 percent) by a two percent margin.

For the survey, more than 76,000 people were interviewed via telephone and internet over a period of ten years which ended in April of 2016.

Most Generous Cities in America Donate Actively Through Churches, Says Study

A recent Barna study compiled a list of the most generous cities in America, and comes after the lists that Barna published earlier in 2015 regarding the most Bible-minded cities, church-less cities, and post-Christian cities.

Cities that register the highest percentage of donations are the same as the cities where people give most to churches, the study found.

The most generous city was El Paso in Texas where 92 percent of the residents donated to charities and non-profit organizations, followed by Lexington (91 percent) in Kentucky, Memphis (90 percent) in Tennessee, Charleston-Huntington (90 percent)

in West Virginia, and Milwaukee (89 percent) in Wisconsin.

The same cities that were most generous gave most of the donations to churches.

El Paso and Las Cruces in New Mexico form a combined statistical area, where most of the adults donated through churches (87 percent). In Lexington, about 84 percent gave specifically to churches, followed by Milwaukee (73 percent), Memphis (69 percent), and Charleston-Huntington (64 percent).

The results also show that people don't have to be rich to be generous. In El Paso-Las Cruces, only 7 percent

of Americans were "upscale" or had an annual household income of \$75,000 or more, and 13 percent were "downscale" with annual income of \$20,000 or less.

In other cities that were highly generous as well, the proportion of "downscale" people was higher than the "upscale" ones, with the exception of Milwaukee where "upscale" people (12 percent) outnumbered the "downscale" population (10 percent) by a two percent margin.

For the survey, more than 76,000 people were interviewed via telephone and internet over a period of ten years which ended in April of 2016.

Americans Prefer to Talk About Politics More than About God, According to Study

Americans are more comfortable talking about politics than about God, according to a new survey by LifeWay Research.

Over 1,000 Americans were interviewed about their spiritual life and perspective on politics by LifeWay. The survey focused on the preference Americans place on talking about spirituality as opposed to politics.

About 60 percent of Americans are more comfortable with talking about politics than God, the study found. Evangelicals are more likely to be comfortable with discussing their spiritual beliefs (63 percent).

However, evangelicals also said they think they have more to share than to find out in a spiritual dialogue (32 percent vs. 17 percent).

As many as 64 percent of Americans discussed politics at least three times over the last month, but only 44 percent had given the same impetus to spirituality. 65 percent of Americans not having evangelical beliefs said they talk more about politics.

Along gender lines, more women (51 percent) said they would be comfortable with talking about their faith than those who said they are not (31 percent). Men were more likely to speak about politics than religion, as some 69 percent of said they prefer to talk about politics.

The study also found that levels of preference for the context in which spiritual discussions take place also differed. About 38 percent of Americans like to share their faith or are very

comfortable with expressing spiritual thoughts on social media, but 36 percent are not. And some 33 percent prefer sharing faith in a small group, and 40 percent on a one-to-one basis. Only 17 percent of Americans were "most comfortable" with sharing their faith on social media.

"People tend to discuss the things that matter most to them," he said. "For evangelicals, that is their faith," said Scott McConnell, executive director of LifeWay Research.

Since Americans in general were open to spiritual views of their friends, McConnell encouraged Christians to talk more about faith on social media.

"If your friends are tired of arguing about politics on Facebook, try asking them about God," he said.

Sunday Services: 9 AM & 11:15 AM
Children's Ministry: 9 AM & 11:15 AM
Youth Group Service: Sundays at 11:15 AM

PASTOR KEITH PARK

Church of Southland

1380 S. Sanderson Ave, Anaheim, CA 92806
T. (714) 209-7349 / churchofsouthland.co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PASTOR STEVE CHOI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PASTOR TIM PARK

Evangelical Free Church Diamond Bar

3255 S. Diamond Bar Blvd, Diamond Bar, CA 91765
T. (909) 594-7604 / www.efreedb.org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org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1.org

PASTOR PHIL KIM

The Home Church

19271 Colima Rd, Suite A/B,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lafgc.co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PASTOR KIWON SUH

New Life Vision Church

4077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323) 373-0110 / www.nlvc.org

PASTOR PAUL KIM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 (760) 753-2535 / www.redeemersd.org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ynccla.org

차종에 따라
72개월까지
0%이자 가능

PHH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SUMMER 특별SALE

"THE EXCITING APPEAL OF ELANTRA SPORT"

NEW
**2017 HYUNDAI
ELANTRA SE**
Lease It For **\$58^{+Tax}**
**All In Stock With
MSRP \$19,260**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Signing, \$500 Lease Cash, \$5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NEW
**2016 HYUNDAI
SONATA SE**
Lease It For **\$88^{+Tax}**
**All In Stock With
MSRP \$22,875**

"DESIGN RENEWED BY INNOVATION"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Signing, \$2,750 Lease Cash, \$5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NEW
**2016 HYUNDAI
TUCSON SE FWD**
Lease It For **\$98^{+Tax}**
**All In Stock With
MSRP \$24,115**

24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1,500 Lease Cash, \$5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NEW
**2017 HYUNDAI
SANTA FE SPORTS 2.4 FWD**

Lease It For **\$118^{+Tax}**

**All In Stock With
MSRP \$26,470**

24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1,250 Lease Cash, \$750, Competitive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찰리 정

626.513.4981



스티브 장

626.723.3336



저스틴 길

626.723.3584

HYUNDAI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See dealer for LIMITED WARRANTY details.

**HYUNDAI
Assurance**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